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47호 【루계 제25390호】 주체105(2016)년 9월 3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시탁아소유치원물자공급관리소에 콩우유운반차들을 보내시였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여기는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후대사랑의 숭고한 화폭이 또다시 펼쳐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시탁아소유치원물자공급관리소에 콩우유운반차들을 선물로 보내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어린이들의 건강과 발육에 좋은 식료품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며 수도에 어린이식료품공장을 일떠세워주시고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콩우유운반차들이 줄지어 달릴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후대관을 그대로 이으시고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콩우유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은정어린 조치들을 취해주시였으며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평양시탁아소유치원물자공급관리소에 콩우유공급에 필요한 새 운반차들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여기에는 우리 아이들을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로, 희망과 미래의 전부로 여기시며 그들이 앞날의 강성조선을 떠메고 나갈 주인공들로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바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기대가 뜨겁게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시탁아소유치원물자공급관리소에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2일에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안정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판계부문 일군들, 평양시안의 탁아소유치원물자공급부문,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선물전달사가 있었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콩우유운반차들에는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시는 절세위인의 친어버이사랑과 함께 관리소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어린이들에 대한 콩우유공급을 더 잘해나갈것을 바라시는 믿음이 담겨져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심장에 새기고 콩우유를 비롯한 어린이식료품생산과 공급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은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어머니당의 사랑이 어린이들에게 그대로 미치도록 할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당에서 마련하여준 콩우유운반차들을 눈동자와 같이 애호관리하며 정상가동을 보장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길이 전해가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바라시는 대로 콩우유생산과 공급을 더 잘하여 우리 어린이들을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동이들로 튼튼히 키우는데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나이제리아인사가 선물을 드리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선군절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국회 상원 의원이 선물을 드리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나이제리아국회 상원 의원 아부불라호 아다무가 8월 22일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하였다.

아부불라호 아다무는 선물들을 전달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뜻깊은 선군절을 맞는 전체 조선인민을 열렬히 축하한다.

백두의 기상과 넋을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각하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사회주의조선을 믿음직하게 수호하시였을뿐아니라 선군의 위력으로 강성조선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다져놓으시였다.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께서는 조선을 그 어떤 적대세력들의 군사적도발과 위협에도 끄떡하지 않는 핵강국으로 만방에 빛내이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안아오고계신다.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조선에서 날마다 경이적인 성과들이 창조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선군의 위력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오늘 조선은 자주와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경탄과 부러움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따라서 나는 경사스러운 선군절에 즈음하여 선군령장이신 김정일대원수각하와 제국주의자들을 쉬락쩌락하시며 세계정치를 주도해나가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를 흠모하여 소박한 선물들을 마련하게 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아울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께서부터 건강하시여 고귀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한다.

본사기자

김정은령도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서 연설, 당의 령도따라 청년강국을 빛내여나갈 불같은 의지를 과시한 해불야회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참석하시여 강령적인 연설을 하신 소식,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경축 청년전위들의 해불야회가 성대히 진행된 소식을 8월 29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나라의 청년운동발전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청년동맹사업을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기초하여 조선혁명과 청년운동발전의 요구에 맞게 진행해나갈것을 강조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의 5월1일경기장에서는 대규모 해불야회가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주석단에 나오신 김정은령도자를 우러러 열광적인 환호를 올렸다.

해불야회에서는 대규모축포발사도 있었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은 김정은위원장께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참석하시여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위원장께서는 이번 대회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청년운동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을 불패의 전위대오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청년동맹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청년동맹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기치로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대회를 경축하는 해불야회를 관람하시였다.

거대한 불바다를 이룬 대규모해불야회에서 청년학생들은 어려가지 대형과 불의 물결을 펼치면서 김정은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심을 표시하였다. 또한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청년강국을 빛내여나갈 불같은 의지를 과시하였다.

성대한 해불야회로 대회경축분위기는 더한층 고조되였다.

미국의 AP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해불야회가 진행될 5월1일경기장 주석단에 나오시자 군중들은 일어서서 환호성을 터치였다, 야회에서는 해불봉을 추켜든 수많은 청년들이 대형을 짓고 어려가지 상징물, 글발들을 새겼다, 경기장상공에 축포가 터져오르면서 행사는 최절정을 이루었다고 전하였다.

꾸바의 쁘렌싸 라띠나통신, 월남신문 《년전》, 라오스신문 《비엔티안타임스》, 미국의 UPI통신과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봉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참석하시여 강령적인 연설을 하신 소식을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찌통신, 연꼐웨TV방송, 《1룡로》TV방송, 로씨야 24TV방송, 펜뜨르TV방송, 중국의 신화통신, 모리따니의 인터네트통신 이르샤드,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인터네트홈페지는 이 소식과 함께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경축 청년전위들의 해불야회가 성대히 진행된 소식도 전하였다.

청년전위들의 해불야회가 진행된 소식은 필리핀신문 《필리핀스타》, 적도기네TV방송도 보도하였다.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보시였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자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청년강국의 주인공들

지난 40여년간 수많은 청년동맹단체들과 1만 수천명의 청년들에게 김일성청년영예상과 김정일청년영예상 수여

오늘 우리 청년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청년강국의 주인공들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억세게 자라나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평생 청년들을 혁명의 선봉투사들로 값높이 내세워주시고 그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영웅적위훈을 세우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우리 수령님의 청년중시사상과 업적을 더욱 빛내이시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들을 사랑하라!》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혁명의 년대기들마다에 우리 청년들을 당중앙을 핵 앞장에서 옹위하는 전위투사들로, 시대의 영웅들로 적극 내세워주시였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사상과 업적을 받들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사랑과 믿음에 떠받들려 청년강국의 주인공들로 값높은 삶을 빛내여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40여년간 1 100여개의 청년동맹단체와 1만 1 900여명의 청년들에게 김일성청년영예상이, 지난 4년간 90여개 청년동맹단체와 600여명의 청년들에게 김정일청년영예상이 수여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 선군혁명의 제1선 참호를 지켜선 인민군대도 청년군인집단이며 강성국가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구들마다에서 위훈을 떨치고 최첨단을 돌파해나가는 선봉대, 돌격대도 청년들입니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청년운동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그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6(1927)년 8월 28일 《ㅌ, ㄷ》의 기치아래 주체형의 혁명조직인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결성하시였다.

해방후인 주체35(1946)년 1월 17일 우리 나라 청년들의 정치조직인 북조선민주청년동맹을 창립하도록 하시고 그 강화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5(1956)년 1월 16일 민청창립 10주년기념 청년의 영예상을 제정하여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민청창립 10주년기념 청년의 영예상에는 모든 청년들이 항일의 공청원들의 투철한 수령절사충위정신, 혁명적투쟁기풍을 적극 따라배워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튼튼히 자라날것을 바라시는 우리 수령님의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었다.

민청창립 10주년기념 청년의 영예상이 제정된 후 청년들속에서는 학습과 조직생활을 잘하고 맡은 혁명과업수행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우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으며 그 나날에 수많은 영예상수상자가 배출되였다.

그후 우리 당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어버이수령님께와 위대한 장군님께 무한히 충직한 청년전위들로 억세게 자라나려는 청년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주체61(1972)년 1월 김일성청년영예상이 제정되였으며 그 생활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이 발휘되였다.

주체101(2012)년 2월 뜻깊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청년운동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모범적인 청년동맹조직들과 일군들, 청년들을 표창하기 위하여 김정일청년영예상을 제정할데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되였다. 그리하여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을 계기로 지금까지 많은 모범적인 청년동맹일군들과 청년동맹원들이 김정일청년영예상을 수여받았다.

그들속에는 주체101(2012)년 6월 어느날 새벽 무더기비에 의한 사태로 집이 무너질 위험한 순간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초상화를 목숨바쳐 보위함으로써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선군시대 청년동맹원의 빛나는 삶과 재끗한 정신을 남김없이 보여준 신흥군인룡중학교(당시) 4학년 학생이였던 한현정도 있고 강선땅의 《처녀어머니》인 남포시 천리마구역사회급양관리소 로동자 장정화동무도 있다. 얼마전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비롯한 사회주의대전설전투장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청년들에게 김일성청년영예상과 김정일청년영예상이 수여되여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드높은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김정일청년영예상의 제정, 이것은 일찍부터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정치를 펼치시였으며 청년동맹조직을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존함으로 빛나는 영광스러운 전위대오로 강화발전시켜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청년운동사상과 업적을 대를 이어 길이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다.

지금 온 나라 청년들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하여 자기들의 있는 힘과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들인 우리 청년들은 항일의 열혈투사들의 붉은 피가 스민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기발을 더 높이 추켜들고 어버이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을 지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선군혁명위업의 계승자로 억세게 자라날것이다.

본사기자 주령봉

청년판으로 들끓는 세포전역

922건설돌격대 청년돌격대원들

922건설돌격대 청년돌격대원들이 우뢰소리마냥 터치는 함성이 세포전역을 진감시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이 땅에 솟아오른 대기념비적창조물들마다에는 우리 청년들의 영웅적위훈이 아로새겨져있으며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창조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당과 조국을 위하여 피끓는 청춘을 바치갈 열의에 충만된 청년전설자들이 세포동판에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고있다.

조선인민군 강신독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새 기적창조를 위한 대고조격전에서 기수가 되여 나아가고있다.

군인건설자들은 총정의 200일전투기간 많은 대상건설을 기어이 앞당겨 끝내기 위한 총공격전을 드세차게 벌리고있다. 전투과정에 대상건설과제가 더 제기되였지만 이들은 주저하지 않고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고 웨치면서 드센 담력과 배짱으로 전투를 벌려 이달중에 대부분의 건축물건설을 완공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있다.

인민보안성려단의 군인건설자들이 청년돌격정신으로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을 전례없이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군인건설자들은 한개 리소재지를 통채로 개건하는 전투의 앞장에서 내탈리며 백여리 먼곳에서의 통나무운반을 맡아 본때있게 해제끼였다. 수백t의 말린 먹이풀증산과제를 맡아 해낸 대담한 목표를 내세운 이들은 종전같으면 한달동안에 해야 할 일을 짧은 기간에 끝내기 위해 대비약을 일으키고있다.

성, 중앙기관돌격대와 각 도려단의 청년돌격대원들이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청년이라는 이름과 함께 불리우는 자랑스러운 성과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하고있다.

황해북도려단에서 새 소식이 전해지고있다. 려단에서 자체로 꾸린 자력갱생기지운영을 전적으로 맡아하고있는 청년돌격대원들이 자기 단위만이 아니라 축산물가공기지건설장과 풀판조성에 필요한 많은 외장재와 소석회를 생산보장한데 이어 계속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황해남도려단 청년돌격대원들은 두달분의 물비기계회을 20여일만에 끝내고 수십정보의 풀판과 먹이작물포전을 가꾸는데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평안남도려단 청년돌격대원들도 먹이작물세배에서 청년전위의 본때를 보이고있다. 얼마전 순천시대대의 먹이작물포전에서 진행된 각 대대 청년동맹초급일군들을 위한 보여주기사업을 계기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의 불길을 더욱 높이 추켜든 청년돌격대원들은 여러 정보의 풀판을 더 맡아 정성껏 관리하고있다. 이들은 최근에 한개 대대가 열흘동안 해야 할 먹이풀수확을 4일만에 끝낸것과 같은 기적적인 성과들을 련이어 창조해나가고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문화성, 수도려객운수국, 의학과학원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청년돌격대원들도 청년이라는 이름과 함께 불리우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기 위한 철야진군길에서 자랑찬 위훈을 떨치고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올해에 무조건 끝낼 비상한 각오로 전진해가는 청년전위들의 과감한 돌격전에 의해 어디나 청년판으로 들끓고있는 세포전역에서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날을 따라 더욱더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현지보도반

5만여t의 세멘트 증산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상원의 미더운 로동계급이 200일전투에 진입하여 지금까지 계획보다 5만여t의 세멘트를 더 생산하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궐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력사적인 200일전투를 돌소 진두지휘하시며 전설적인 초강도강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소식들을 무한한 격정과 환희속에 접하면서 상원의 로동계급은 더 많은 세멘트를 생산하여 대고조전투장들에 보내줄 불타는 열의에 넘쳐 분발하고 또 분발해나섰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일군들이 생산현장들에 달려나가 대중과 함께 불꽃튀는 증산투쟁을 벌리면서 로동계급의 애국충정을 활화산마냥 총폭발시켜 세멘트생산의 비약적장성을 이룩하기 위한 첨입식정치사상공세를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이곳 참모부에서는 각종 원료, 연료보장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200일전투증산목표를 높이 내세운데 맞게 설비리용과 로력조직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기동성있게 해나가고있다. 특히 철광석을 비롯한 자체의 광석생산기지들을 활성화하면서 지난해보다 10만t이상의 세멘트를 증산하여 또다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강행돌파하기 위한 투쟁의 불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련합기업소의 모든 로동자, 기술자들이 말로써가 아니라 완강한 실천과 자랑찬 실적으로 조국의 륭성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해나갈 불타는 열의밑에 전투장마다에서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생산의 주요공정을 맡은 소성직장과 세멘트직장에서 절사관철의 투쟁기풍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예비부속품들을 충분히 갖추어놓은 소성직장 로동자들은 설비가동중에 뜻밖의 정황이 조성될 때마다 락반처리작업과 불판교체를 제때에 진행함으로써 조업이래 일최고생산실적을 기록하는데 한몫 단단히 하였다. 월별, 분기별계획수행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이고있는 세멘트직장 기능공들이 또다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강행돌파할 대담한 목표밑에 각종 설비들의 만부하를 책임적으로 보장하여 200일전투에 들어와 지금까지 5만여t의 세멘트를 증산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질좋은 세멘트를 더 많이 생산하는데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중앙조종실의 조종사들은 전반적인 공정운영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세멘트의 질을 높이면서도 생산량을 부쩍 늘일수 있게 하고있다.

조합원료직장과 원료직장, 전기직장, 상원석회석광산과 삼청광산, 일출봉광산과 화천탄광을 비롯한 련합기업소의 모든 일터에서 만리마속도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 증정의 200일전투기록장에 련일 눈부신 생산실적이 기록되고있다.

지금 력사의 땅 평당지구에 활화산마냥 타오르는 증산투쟁의 거센 열기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직접 발기하시고 승리에로 이끄시는 려명거리건설을 비롯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리상과 꿈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대건설전투장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창조의 힘있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정순성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 평양326전선공장에서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생산에서

본사기자 리충성 찍음

어머니조국에 뜨거운 심장을 바치자

천만의 가슴에 이 세상 제일 위대하고 존엄높은 우리 조국을 위하여 헌신할 애국적열의를 더욱 굳혀주는 9월,

우리 조국땅은 지금 수도 평양으로부터 북방의 산간오지에 이르기까지 만리마의 기상이 도도히 굽이치는 가운에 위대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강국건설의 유훈을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온 세계에 앞서나가는 주체의 락원, 인민의 만복이 넘쳐나는 나라로 빛내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지가 낳은 경이적인 현실이다. 당의 원대한 구상실현에 피끓는 심장으로 화답해나선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충정이 펼친 조선의 눈부신 시대상이다.

사회주의강국의 려명을 하루빨리 펼쳐갈 열의로 천만의 대오가 총매진하고있는 만리마시대는 매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있다.

동무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무엇을 바쳤는가.

애국자, 이는 시대와 인민이 자기의 훌륭한 아들딸들에게 주는 가장 값높은 칭호이다.

우리 조국의 긍지높은 력사는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생의 흔적을 뚜렷이 새겨가는 사람들,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투쟁하는 고결하고 아름다운 애국자들로 하여 전인미답의 성공탑을 높이 쌓는 위대한 애국의 행로이다.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발휘한 애국의 열정을 천만금보다 더 귀중히 여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애국자의 대오는 날로 늘어나고 그 길에서 조선로동당의 령도적권위, 존엄높은 우리 조국의 위력이 비상히 과시되고있다.

※ ※

위대한 시대상에는 수령의 애국정신이 뜨겁게 어려있다.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인간.

그 누구보다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였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며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이 눈물겹게 어려온다.

위대한 혁명생애의 나날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이 소중히 자리잡고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는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험난한 길을 헤치며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혁명가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였으며 수령님께서 맡기고 가신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초불처럼 태우신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인간의 가장 고결한 한생이였습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과정에 이러저러한 관계로 서로 정을 떼고 정을 나누게 되지만 자기 조국, 자기 겨레와 떼는 정이야말로 끊을수도 없고 버릴수도 없는 참으로 류별나게 혈연적인것이다.

어느해인가 어버이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어느 한 나라에 가시였을 때의 일을 회고하신 교시가 우리 천만군민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준다.

외국방문의 나날 얼마나 조국이 그리우시였으면 우리 장군님께서는 폭잠에 드시였어도 내내 조국으로 돌아오는 꿈을 꾸시였다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는 그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든 사람들과 딸랑이나 김치, 고추장이 그리워서라도 조국을 배반하지 못할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의미심장하게 교시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참으로 조국이란 한없이 귀중하고 정다운것이라고, 자기 조국, 자기 민족을 귀중히 여기고 진정으로 사랑할줄 아는 사람만이 참다운 애국자, 진정한 혁명가로 될수 있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이런 열화의 감정으로 심장을 불태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슴에 간직된 애국심은 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였다. 생활속에서 발현되는 구체적인 사상감정이 곧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관이고 애국심이였다.

이와 관련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도 잊지 않고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에게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때의 체험담을 듣게 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 그 일군은 전투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험한 산발을 타고 밤새워 강행군을 할 때 제일 이겨내기 힘든것은 졸음이 오는것이였는데 졸음을 쫓는 가장 좋은 약은 마을에서 들려오는 개짖는 소리, 닭울음소리였다고, 길은 밤중에 멀리에서 개짖는 소리가 들려오거나 새벽에 닭우는 소리가 들려오면 저도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고향생각이 나고 묻여받은 땅이 생각나서 견딜수가 없었다고 말씀올리였다.

일군의 이야기를 감동깊게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항일유격대원들이 산에서 싸울 때 제일 즐겨부른 노래의 하나가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였는데 이것은 그 노래에 사랑하는 고향과 부모형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표상이 생동하게 담겨져있기때문이였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애국심은 자기 조국, 자기 민족에 대한 구체적이고 도정서적인 사상감정이 합쳐지고 융합되여 이루어지는 숭고한 사상감정이라고, 애국심은 자기의 고향과 부모처자 그리고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를 소중히 여기며 아끼고 사랑하는데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고 교시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근로자들과 새 세대들을 자기 고향과 자기 일터, 자기가 사는 거리와 마을을 비롯하여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의 모든것에 정을 붙이고 그것을 열렬히 사랑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하여야만 어머니조국의 품이자 곧 어버이수령님의 품이며 따라서 어머니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떠나서는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정심도 생각할수 없다는 진리를 똑바로 인식시켜줄수 있다고 뜨겁게 강조하시였다.

자기의 마을과 일터, 사회주의조국의 모든것에 대한 정으로부터 당과 혁명에 대한 충정도 나오고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존엄한 시각에 주저없이 적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는 영웅주의도 나온다는 고귀한 진리를 새겨주시는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멀리 현지지도의 길에서 달리던 차를 비롯에 패인 발머리앞에 멈춰세우게 하시고 동무들이 흙 한줌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것을 모른다고, 한줌한줌의 흙이 땅덩이를 이루고 그 땅덩이가 바로 조국이라고, 이 세상에서 조국보다 귀중한것이 없다고 조국애의 철리를 새겨주신 우리 장군님,

어쩌 보면 파수원에 들어선것 같고 어쩌 보면 수림속에 들어선것 같기도 한 부대를 돌아보시며 매 나무마다에 군인들의 손길이 가닿지 않은데가 없다고, 나무를 많이 심고 정성껏 가꾸는것은 애국심의 표현이라고, 이 부대는 애국자부대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신 우리 장군님,

오때에도 그리면 어버이장군님을 모신 격정과 흥분을 이기지 못하여 그이의 품에 와락 안겨 어린애들처럼 소리내여 눈물을 흘리는 국방공업부문의 로과학자들을 사랑의 품에 안으시고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오로지 조국의 존엄과 번영을 위하여 묵묵히 탐구의 길을 걸어온 그들의 애국헌신에 대한 찬양과 감동의 눈물을 소리없이 흘리신 우리 장군님,

울창한 수림과 번듯하게 정리된 드넓은 대지를 보시면 부강번영할 조국의 래일과 대대손손 누려갈 인민의 행복한 앞날을 그려보시며 정을 담아 푸른 산, 푸른 들이라고 조용히 외우기도 하시고 외국방문의 길에 계실 때에는 두고온 조국과 인민이 너무도 그리워 내 나라, 내 민족이라고 감회깊이 불러보군 하신 우리 장군님…

과연 어느 시대에 우리 장군님처럼 조국과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이 땅의 흙 한줌,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그 무엇과 바꿀수 없는 재부로 귀중히 여기시며 위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을 희생적으로 이어가신 애국의 화신이 있었던가.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세기적변혁과 강성번영하는 선군조선에 펼쳐진 자랑찬 현실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헌신이 슴배여있지 않은것이 없다.

절세의 애국자에 대한 노래가 오늘의 만리마시대의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송가로 끝없이 메아리치고있는 격동적인 현실은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 길이 빛내이고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고귀한 정신적유산이며 실천의 본보기인 김정일애국주의의 열풍을 거세차게 일으켜 최후승리의 날을 하루속히 앞당기려는 천만군민의 격앙된 사상감정의 분출이 아니던가.

수령의 영생을 받들어가는 인민의 영원한 충정과 도덕의리는 수령이 넘겨준 위대한 유산인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는 애국위업에서 표현되여야 한다.

우리 장군님께서 천신만고하시며 한생을 깡그리 바쳐 이루어놓으신 고귀한 유산을 절대로 헛되이 하지 말고 백년, 천년을 앞당겨 비약해야 하는것이 우리 세대의 의무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대대손손 꽃피우기 위한 우리의 성스러운 투쟁도, 인류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실현의 돛을 한껏 펼친 주체혁명위업도 다름아닌 내 조국을 천하제일강국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목적에 지향되여있다.

전세대가 다음세대를 위하여 훌륭한 애국유산을 마련해주고 다음세대가 또 다음세대를 위하여 보다 풍부한 애국유산을 물려주는 창조의 뉴대속에서만 김정일애국주의가 투쟁과 생활의 지침으로서의 자기의 생명력을 무궁토록 담보할수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영원한 전사, 제자들인 우리 군대와 인민앞에는 후대들을 위하여 오늘을 위훈과 창조로 살아야 할 사명이 놓여있다.

당과 령도자에 대한 충정심이야말로 최고의 애국이다. 령도자에 대한 충정심은 참된 애국자가 지니고있는 모든 정치사상적 및 도덕의리적인 품성의 바탕으로 되며 그것을 높이 발양시키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우리 시대의 참된 삶, 애국의 가치는 령도자의 사상과 뜻을 받들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에 헌신하는 보람찬 투쟁속에 있다. 후회없이 떳떳하게 살고 부끄러움없이 아름답게 사는것이 우리 시대의 애국의 삶이다.

충정심의 높이이자 애국심의 높이이다. 이는 지나온 우리 혁명사가 실증한 진리이다. 돌이켜보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심이 특출한 사람들은 례외없이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한 애국자들이였다.

우리 인민을 참된 애국자로 키워주는 김정일애국주의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숭고한 인민관에 그 바탕을 두고있다.

애국심은 인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신과 헌신적복무에 기초할 때에만 참다운것으로 될수 있다. 한것은 당과 령도자에 대한 충정심도 인민에 대한 사랑, 복무정신을 떠나 생각할수 없기때문이다.

우리 시대에서 삶의 가치와 행복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어떻게 복무하는가 하는데 있다.

자기에게는 차례질 몫이 없다는것을 알면서도 집단과 동지들을 위하여 밤낮없이 뛰면서 진정한 희열을 느낄줄 아는 인간, 꽃방석은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바늘방석에 앉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애국헌신으로 삶을 빛내이는 참인간이다.

우리 인민모두를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가며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를 당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인민관으로 자나깨나 심장을 불태우는 사람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이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애국헌신의 길에서 생의 흔적을 뚜렷이 남길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빛내여주시는 우리 조국은 주체사상의 요구가 완전히 구현된 자력자강으로 전진하고 승리떨치는 나라, 위대한 혼연일체가 실현된 가장 리상적인 삶의 보금자리이다.

주체는 애국의 상징이며 그 집대성이다.

우리의 애국은 우리 당과 인민이 높이 들고나가는 주체의 기치로 하여 더욱 빛난다. 주체사상처럼 투철한 애국애민의 사상은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치는 령명공히 주체로 일관된 애국의 정치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조국, 가장 존엄높은 민족이 사는 이 땅을 강국의 풍격에 맞게 리상향으로 꽃피우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리념이다.

강국건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높이 추켜드신 자강력제일주의는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주체사상의 구현이다.

오늘의 세계에서 남의 나라를 도와주고 남의 쌀독을 채워주며 가치있는 과학기술적재부를 선사할 나라는 없다.

애국심, 바로 이것만 있으면 시련과 난관을 뚫고 남이 하나를 할 때 열백을 해내는 기적을 낳기마련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천만군민이 주체는 애국, 애국은 주체이라는것을 뼈에 새기고 그 어느때보다도 강인하게 일떠서 경제와 문화, 과학과 교육, 보건과 체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를 세계적인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하여 총매진하여야 할 결사전의 시기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애국은 자기 집뜰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애국은 선렬들이 피와 땀으로 쟁취하고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을 비롯한 찬란한 물질문화적재부가 있으며 누구나 참된 삶과 행복을 누려가는 터전인 우리 제도에 대한 애착이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는 자기의 부모처자가 있고 혁명동지들이 있으며 자기가 늘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는 일터와 학교 그리고 자기를 언제나 따뜻이 보살펴주고 일깨워주는 혁명조직이 있는 귀중한 제도이다.

자기의 부모처자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고향마을과 일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조국과 인민을 사랑할수 없으며 참다운 애국자로 될수 없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다.

조국보위에 최대의 애국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보위에 바쳐진 삶이 가장 값높은 애국적인 삶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자기에게 보람찬 삶을 안겨주고 생을 빛내여주는 어머니조국을 한목숨바쳐 보위하는것보다 더 중대하고 영예로운 일은 없으며 조국보위에 바쳐진 삶보다 더 값높은 애국은 없다.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는데서 일군들이 모범이 되여야 한다는것이 오늘 우리 당의 요구이다.

일군의 애국적풍모는 대중에게 있어서 말없는 거울이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열정으로 불타는 일군, 언제나 투쟁의 선봉에 서서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는 일군만이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하여 말할 자격이 있다. 바로 이런 일군이라야 인민들이 그를 따라 등짐도 지고 보석같은 애국의 마음을 깡그리 부강조국건설에 바칠수 있는것이다.

세상에 나라는 많아도 조국은 오직 하나뿐이다.

김정일애국주의를 넋으로, 슴결로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의지를 받들어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본사기자 량 순

인민의 행복에서 찾으신 기쁨

절세위인의 숭고한 뜻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훌륭히 일떠서 세상사람들의 경탄과 부러움을 자아내는 온하과학자거리,

여기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은덕과 숭고한 뜻이 사려깊이 슴배여있어 천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인민을 끝없이 존중하고 인민의 리익을 절대시하며 인민들을 참다운 어머니심정으로 보살펴주어야 합니다.》

주체102(2013)년 9월 8일,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5돐을 앞둔 그날 온하과학자거리에 경사가 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된 온하과학자거리를 돌아보시기 위해 또다시 현지를 찾으시였던것이다.

과학자들의 살림집문제를 당에서 풀어주어야지 누가 풀어주겠는가고 하시며 과학자들에게 최상급의 고급살림집을 안겨주게 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시종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뜨거워올랐다.

우리의 과학자들에게 제일 훌륭한 살림집을 안겨주시려 친히 건설을 맡기시고 그에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해주신분,

몸소 건설장을 여러차례 찾으시고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의 정당성을 실천으로 증명한 과학자들에게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하나의 가구, 하나의 타일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관심을 돌리시여 온하과학자거리를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럽게 훌륭히 일떠세워주신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우리 과학자들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주시려는 열화의 사랑으로 온하과학자거리를 일떠세워주시고 완공된 거리에 선참으로 찾아오시여 커다 은정을 베푸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일군들은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 살림집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며 시공을 손색없이 잘했다고, 살림살이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과학자들이 맨몸으로 들어와 보금자리를 펼수 있게 되였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우리 과학자들에게 가장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마음써오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소원을 또 하나 풀어드리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수령님들께서 이 거리를 보시였으면 얼마나 좋아하시였겠는가고 뜨겁게 뇌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절세위인들에 대한 경모의 정으로 하여 절절히 울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저녁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수령님과 장군님께 과학자살림집지구가 훌륭히 일떠선데 대하여 보고드리려고 하는데 그 보고를 받으시면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도 기뻐하실것이라고, 수령님과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고 인민들이 기뻐하는것을 보는 멋에 혁명을 하는것이라고 격정어린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정녕 우리 과학자들과 인민들을 열렬히 사랑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평생소원을 풀어드리는것, 자신께서 심혈을 바치시여 마련하시는 과학자들과 인민의 기쁨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제일의 기쁨이고 더없는 보람이고 락이였다.

광화국방전 65돐을 맞으며 온하과학자거리를 훌륭히 일떠세워주시고 곳곳을 돌아보시며 새 집들이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관심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임사날에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이 모두 현지에 나와 새집들이를 하는 과학자들을 축하해주자고 은정넘친 말씀을 하시였다.

온하과학자거리의 새 집들에 들어서는 날 집주인들은 물론 축하해주려고 온 사람들모두가 북받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자애로운 어버이가 되시여 우리 과학자들과 인민들을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마음과 함께 충정의 맹세가 모두의 가슴마다에서 뜨겁게 이글거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늘같은 은정을 영원히 간직하고 과학기술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본사기자

《철쭉》

무릇 한가지에서 열매를 헤아릴수 있다고도 한다.

이 땅우에 나날이 커가는 인민의 행복, 정녕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끝없이 이어지는것인가.

얼마전 수도의 한 백화점에 들렸던 나는 사람들이 흥성이는 매대에서 이에 대하여 세삼스럽게 음미해보게 되였다. 보기만 해도 탐탁하고 무늬고운 《철쭉》상표가 붙은 양말을 사들고 기뻐하는 인민들, 당겨도 보고 크기도 가늠해보면서 기쁨에 넘쳐있는 그들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류다르게 들려왔다. 이제는 《철쭉》상표가 붙은 우리의 양말에 정이 들었다고, 질도 참 좋고 색갈도 곱다고…

자기것에 대한 긍지감과 자부심에 넘쳐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느라니 언제인가 위제집에서 한 일군이 들려준 이야기가 다시금 돌이켜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고 무한히 존대하고 내세워주며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고 훌륭한 생활필수품을 안겨주시려 그토록 마음쓰시며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몇해전 새로 일떠선 어느 한 상점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또 하나의 훌륭한 봉사기지를 인민들에게 안겨주게 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상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양말매대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매대에는 우리의 상표가 붙은 여러 종류의 많은 양말들이 놓여있었다.

문득 그이께서는 매대에 놓여있는 《철쭉》상표가 붙은 양말 한짝을 골라드시였다. 그러시더니 자신께서 신으신 양말과 대비해보시는것이였다.

순간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이께서 신고계시는 양말도 《철쭉》상표 양말이였던것이다.

자신께서 신은 양말이 여기에 있는것과 똑같다고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우리 원수님,

일군들은 이름할수 없는 격정에 잠기였다.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들이 사용하는것이라면 그 무엇도 무심히 대하지 않으시고 자신께서 직접 신고다니시며 그 질도 알아보고 개선대책도 세워주시기 위하여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고계시는것이 아닌가.

격정에 잠겨있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도 평양양말공장에서 만든 양말을 신었다고 하시면서 지난 시기 우리가 만든 양말은 몇번 신으면 양말목의 고무줄이 늘어나는것이 결함이였다고, 장군님께서도 평양양말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 그에 대하여 지적하시였는데 양말의 질을 더 개선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다심하게 이르시였다.

그로부터 몇달후 우리 원수님께서는 평양양말공장에 또다시 령도의 자욱을 새기시였다.

할 일이 많고 가보아야 할 대상도 많지만 장군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돌리신 이 공장에는 꼭 나가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오랜 시간을 바쳐가시며 인민들이 리용하게 될 양말생산과 그 질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해당한 대책들도 일일이 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렇듯 우리 원수님의 세심하고도 사려깊은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평양양말공장에서 생산하는 《철쭉》상표 양말은 오늘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제품으로 될수 있었던것이다.

《철쭉》상표 양말에 비낀 절세위인의 한없이 고매한 인민적풍모,

하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이 땅우에 나날이 커가는 인민의 행복이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떻게 끝없이 이어지고있는가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새겨안을수 있었다.

그렇다. 온 나라 집집의 창가마다에 넘쳐나는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이 땅 그 어디서나 울리는 로동당만세, 사회주의만세소리는 진정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께서 바쳐가시는 인민을 위한 불멸의 헌신적복무로 하여 더더욱 높아가는것이다.

본사기자 채 희 성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하노이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

쩐 다이 꽝 동 지

나는 웰남사회주의공화국창건 71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친선적인 웰남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당신이 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국가주석으로 재선된데 대하여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새 국가지도부의 령도밑에 귀국인민이 부강한 웰남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리라고 믿습니다.

당신이 건강할것과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5(2016)년 9월 2일 평 양

본사기자 김 종 혁 촬영

—안악군 로암협동농장에서—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가고있다.

농장에 깃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끝없이 이어지는 사랑의 길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 나라 인민을 한품에 안으시고 비내리는 궂은날에도 감동깊이 펼치시는 열렬한 애국헌신의 화폭들이 인민의 가슴에 뜨겁게 새겨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지난 7월 어느날에도 비가 내리였다.

줄곧 내리는 그 비발속을 헤치시며 정력적인 령도의 세계를 펼치시는분이 계시였으니 그이는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였다.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을 위한 또 하나의 재부인 어분사료공장이 마침내 일떠서 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다는 소식을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머나먼 길을 달리시여 인민군군부대산하 어분사료공장을 찾으시고 헌신의 자욱을 공장의 곳곳에 새기시였다.

내리는 비를 다 맞으시며 우리 인민들에게 더욱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삼가 우러르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가슴가슴은 얼마나 뜨거웠던가.

좋은 날에 오시여도 되시련만 인민을 위한 길이라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기꺼이 헤치시고 열렬한 사랑과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비발속을 헤치며 사랑의 자욱을 아로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격정속에 우러르는 이 공장 주인들만이 아닌 온 나라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뜨거운것이 격랑쳤다.

찾으시는 곳, 이르시는 곳마다에서 뜨거운 인민의 마음을 절감하시였건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시였다.

몇해전 7월 중순 어느날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쏟아지는 비를 다 맞으시며 정력적인 령도의 자욱을 새기시였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발속을 헤치시고 옥류아동병원건설장을 찾으시였다.

군인건설자들의 수고부터 깊이 헤아려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설비명세를 친히 보아주시고 설비들의 종수와 개수를 일일이 료해하시였다. 이때 비가 더 세차게 쏟아지며 경애하는 그이의 옷을 화락 적시였다. 그이께서 계시는 장소주변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문건을 보시며 의료설비들을 들여오는것과 관련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비발속을 헤치시고 건설장을 찾으신 깊은 뜻이 어려와 일군들은 가슴이 후더워올랐다.

아동병원건물을 둘러보시며 건물바깥벽에 붙일 타일에 대하여서도 일일이 관심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동병원은 어린이들을 위하여 당에서 마음먹고 건설하는 병원인것만큼 건물바깥벽부터 멋있게 시공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이윽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중앙현관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앞마당은 여전히 쏟아지는 비로 하여 물에 잠겨 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한 일군이 그이를 땅이 드러난 곳으로 모시려 하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물이 차있는 진창길을 그대로 밟으시며 건물의 현관부로 곧추 들어가시였다. 그곳도 형편은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현관홀 천정에서는 비물이 줄줄이 떨어지고 벽체마다 물이 흘러내려 바깥이나 별반 다를바 없었다.

그이의 옷은 비에 더욱 젖어들고있었다.

하건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물중앙홀 정면콩크리트벽체를 유심히 살펴보시며 중앙홀에 들어서니 홀의 종심이 조감도를 볼 때보다 얕아보인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비준해준 설계형성안을 가져오라고 이르시고는 친히 승인해주신 형성안과 홀내부를 번갈아보시며 세심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이제 완성되면 전경도에 그려진대로 현관홀의 종심이 깊어지게 된다고 설계부문 일군이 말씀올려서야 마음이 놓이시는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경도대로만 하면 세상사람들이 와보고 놀랄것이라고 하시며 꼭 전경도대로 건설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병원에 설치하게 될 의료설비들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값비싼 일부 의료설비들이 없다는것을 아시고는 아동병원에 그 의료설비들을 놓아주어야 하겠다고, 값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아동병원에는 갖추어주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동병원에 직승기착륙장도 예견할데 대하여서와 아동병원에 놓을 비품을 최상급으로 갖추어줄데 대한 문제 그리고 승강기실도 잘 꾸리도록 할데 대한 문제 등 크고작은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관심하시며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내리는 비를 다 맞으시며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격정으로 젖어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이 오늘처럼 비오는 궂은날에 내가 건설장에 또다시 나올가봐 념려하는데 자신께서는 그렇게 할수 없다고, 아동병원은 자신께서 결심하여 건설하고 설계도 구체적으로 보고 비준하여준 대상인것만큼 자주 나와 지도하여야 건설이 잘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 비내리는 건설장에 자욱을 계속 새기시였다.

오랜 시간 건설장을 일일이 돌아보시며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고 뜨거운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물밖으로 나오시였다. 그때까지도 비는 여전히 쏟아져내리고있었다.

내리는 비속을 헤치며 떠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격정속에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속에서는 이런 심장의 웨침이 메아리치였다.

사람들이여,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행복과 더욱 무궁번영할 내 조국의 희망찬 앞날이 억수로 내리는 비도 다 맞으시며 인민사랑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만로고의 길우에 꽃펴나고있음을 부디 잊지 마시라.

본사기자 김 인 선

위대한 당을 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청년들 앞으로!

총돌격전의 앞장에 우리가 서리

500만 청춘들의 심장이 하나로 고동치고있다.

당중앙이 가리키는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나아가자!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연설에 접하고 전 동맹이 불도가니마냥 끓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연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자》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조선청년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강령적지침이며 우리 당따라 영원히 한길을 갈 신념과 의지로 맥동치는 500만의 열혈의 심장에 투쟁의 불, 위훈의 불을 더 세차게 지펴주는 사상적원동력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중앙이 가리키는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나아가는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과 청년들앞에는 광활한 미래가 펼쳐졌으며 조선청년운동의 전도는 끝없이 양양합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부장 리주철동무는 영광의 대회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연설을 받아안던 때의 감격과 환희를 되새겨보며 이렇게 말하였다.

《청년동맹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바로 여기에 조선청년운동의 진로가 뚜렷이 명시되여있습니다. 청년동맹이 무엇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하는가를 깊이 절감할수록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직접 수여해주신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기발에 어린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가슴뜨겁게 새겨집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무한한 흥분속에 받아안고 격정을 금치 못하는 청년동맹일군들속에는 평안북도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백학룡동무도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은 자자구구마다에 우리 청년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가득차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아말로 온 세상이 부러워하도록 높이 떠받들어주고싶은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청년들이며 이런 미더운 청년대군을 가지고있는것은 조선로동당의 큰 복이고 조선의 자랑이며 바로 여기에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강대성과 창창한 미래가 있다고 하신 그이의 말씀을 새겨볼수록 백두산청년강국에서 청년동맹일군으로 일하는 긍지와 보람으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것이 어찌 그의 심정만이랴. 대회참가자들은 물론 온 나라 청년들모두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에서 크나큰 고무를 받아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전 동맹이 부글부글 끓고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에 접한 그날로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서는 해당 부서들이 연설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책안들을 시급히 세울데 대한 문제가 강조되였다. 특히 청년동맹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하는데서 청년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당의 의도대로 교양사업을 청년맞이 나게 참신하게, 풍세적으로 벌려나가기 위한 작전을 면밀히 세우도록 하는데 모를 박았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모든 동맹조직들이 력사적인 연설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학습열풍을 일으키는것을 첫자리에 놓고 여기에 힘을 넣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청년동맹중앙위원회로부터 초급단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청년동맹조직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연설에 대한 학습을 심화시키기 위한 사상공세작전을 짜고들고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앞장에서 돌격로를 열어나가는것은 당의 전투적후비대이며 우리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인 청년들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은 온 나라 청년들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경제강국건설의 전투장들이 청년판으로 끓어번지고있다.

전력, 석탄, 금속공업, 철도운수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선행부문에서 200일전투의 성과를 확대해나가는데서 청년들이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지난 8월 29일 천성청년탄광 차광수청년돌격대가 하루계획을 167%로 넘쳐 수행하고 2.8직동청년탄광 김유봉청년돌격대원들이 10m의 굴진실적을 기록한것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의 청년돌격대들이 드높은 열의밑에 과감한 생산돌격전을 벌리고있다.

삼지연군을 훌륭히 꾸리기 위한 전투장과 려명거리건설장, 천성-성산천자연호름식배수갱공사장을 비롯한 사회주의대건설전투장들에서 청년들이 련일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고있다.

각지의 경공업공장들에서도 백두산영웅청년정신으로 만리마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청년전위들의 사회주의경쟁이 더욱 열기를 띠고 진행되고있다. 지난 8월 29일에만도 녕변견직공장에서 70명의 청년들이 하루계획을 200%이상 넘쳐 수행하고 모든 청년동맹원들이 그날전투계획을 150%이상 수행한것은 당의 믿음을 생명으로 간직한 우리 청년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이면 우리는 지구도 뜬다!

위대한 우리 당따라 청춘의 기개 남김없이 떨치리!

이런 결사의 각오와 든든한 배짱을 안고 최후승리를 향해 폭풍쳐 내달리는 500만 청년대군의 장엄한 진군길에 《청춘송가》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슬기롭고 영웅하고 미더운 500만 청년전위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복속에 힘차게 나아가는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인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의 앞길은 휘황찬란하다.

본사기자 김순영

세차게 일어번지는 로작학습열풍

평양시청년동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연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자》를 받아안은 평양시청년동맹위원회 일군들이 연설의 자자구구를 뼈에 새기기 위한 학습전투의 포성을 힘차게 울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습은 혁명사상과 리론, 전략전술로 무장하기 위한 기본방도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연설이 당보에 실린 날 시청년동맹위원회 초급당부위원장 최금성동무는 지체없이 각 부서일군들의 모임을 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연설은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투적기치이며 만능의 보검입니다. 연설학습전투로 전군의 첫 포성을 울립시다!》

초급당일군의 격정에 넘친 목소리는 일군들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일군들부터 연설원문을 자자구구 파고들며 학습에서 앞장섰다. 독보와 연구발취, 학습토론들이 격식없이 진지하게 벌어졌다.

부부장들인 류광일, 한애영동무를 비롯한 선전선동부 일군들의 학습열의는 대단하였다. 우리의 청년들이야말로 온 세상이 부러워하도록 높이 떠받들어주고싶은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청년들이며 이런 미더운 청년대군을 가지고있는것은 조선로동당의 큰 복이고 조선의 자랑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의 참뜻을 놓고 흥분된 심정을 터치는 일군들, 5대교양을 강도높게 벌리면서 시안의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동맹원들을 조국수호와 조국번영을 위한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추동하여 올해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그 기세로 수도청년들모두를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보다 참신하게, 공세적으로 벌릴 결심들을 피력하는 일군들…

부부장 김혁철동무를 비롯한 조직부 일군들의 학습토론열기도 뜨거웠다. 시안의 청년동맹조직들이 동맹원들속에서 조직생활을 강화하여 그 과정이 청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단련시키는 청년혁명학교과정으로 되게 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부서직능에 맞게 력사적인 로작에 제시된 전투적과업들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책들도 세워나갔다.

위원회의 일군들은 토론과 론쟁의 방법으로 학습을 심화하는 한편 시안의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속에서 학습열풍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었다. 위원회일군들은 사업방향을 그어주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들끓는 전투장들에 달려나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의 사상을 해설선전하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서 청년동맹의 명칭을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으로 새로 명명한 사변적의의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로작의 체계와 내용을 깊이있게 해설선전하며 그 파업관철에로 고무추동하는 방철진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의 화선식정치사업은 청년들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이런 사업은 시안의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동맹원들속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로작학습열풍을 더욱 고조시켰다.

시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로작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의 첫걸음을 이렇게 내짚었다.

본사기자 리정수

열혈청춘들의 화답

철산봉의 뢰성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이 성스러운 부름에 무산광산련합기업소의 수천명 청년전위들이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로 화답해나섰다.

채광, 운광, 선광부문 청년들속에서 련대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지난 8월 29일 하루동안에만도 전투장마다에서 놀라운 성과가 이룩되였다.

로천분광산의 청년들이 발파구멍을 계획외에 연 96m 더 뚫어 분광산이 하루계획을 115%로 넘쳐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운광사업소의 80여명의 청년들은 교대당 두차분을 더 운반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하루동안에 3 600여t의 조광을 더 운반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련이어 이룩되는 청년전위들의 위훈의 새 소식이 온 광산을 들썩하게 한다.

철산봉은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불덩이로 화하였다.

용을 쓰는 회전식착정기들과 대형굴착기들, 대형휘추형과쇄기와 마광기들의 드세찬 동음, 하늘땅을 진감하는 발파소리, 기운차게 내달리는 대형화물자동차들의 발동소리…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연설을 받아안고 산악같이 일떠선 무산의 열혈청춘들의 심장의 박동이 안아온 철산봉의 우렁찬 뢰성이다.

지하막장의 거세찬 숨결

격동적인 소식은 지하막장에도 전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연설에 접한 명학탄광 차광수청년돌격대원들의 흥분은 대단했다.

《우리 원수님께 떳떳한 보고를 드릴수 있게 오늘전투계획을 무조건 수행합시다.》

부대장 김영남동무의 목소리가 모두의 심장을 두드렸다.

잠시후 기관총련발사격을 방불케 하는 착암기의 아무진 동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뒤이어 발파소리…

작업조건은 어려웠지만 굴진전투를 벌리는 돌격대원들의 사기는 충천했다.

한m, 한m… 버력광차를 밀고 나가는 돌격대원들,

500m구간의 케루를 따라 열번이나 버력광차를 밀고 오갔지만 그 누구의 얼굴에서도 지친 기색을 찾아볼수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열의는 더더욱 높아만 갔다.

이날 돌격대원들은 하루전투계획을 192%로 넘쳐 수행하였다.

준마처녀들의 전투보고

8월 29일,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처녀들의 일손에서는 여느때없이 불이 일었다.

만가동을 건 조사기마다에 곡살은 누에고치를 공급해주는 자건작업반의 처녀들이며 그들에게 뒤질세라 분주히 기대사이를 오가며 끊어진 실을 이어나가는 조사공처녀들…

그들의 가슴속에는 하나의 열망이 불타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에 높은 생산실적으로 보답하자.

《우리는 만리마기수》의 노래소리가 그들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였다.

3년분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 기세를 조금도 늦춤이 없이 만리마의 고삐를 더 억세게 틀어쥐고 내달리는 리윤희, 림봉향, 강현초, 로명희동무들,

자기 정량의 2.5배나 되는 주를 맡고서도 그들은 번개같은 일솜씨로 이날 계획을 300%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혁신의 새 소식은 이뿐이 아니였다. 청년작업반원들도 서로 돕고 이끌며 하루전투계획을 280%로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것은 단순히 굴진실적을 보여주는 수자이기 전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에 보답하려는 이곳 청년돌격대원들의 심장의 열도였다.

그것은 전국적 청년돌격대원들의 심장의 열도였다.

청년판이 된 조선이 지구를 뒤흔들고있다.

전세계를 축가마처럼 끓게 한 평양충격!

세계 각국의 출판물들과 통신, 방송들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소식을 앞을 다투어 보도하면서 지면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있다.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인사들과 청년문제관계자들, 청년들은 물론 로인들까지도 흥분된 심정을 하나같이 터치고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8월의 이 위대한 선언과 더불어 평양에 펼쳐진 청년대축전이 이렇듯 온 행성을 뒤흔들고있는것은 과연 무엇때문인가.

지구를 뒤흔든 평양충격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청년들이야말로 온 세상이 부러워하도록 높이 떠받들어주고싶은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청년들이며 이런 미더운 청년대군을 가지고있는것은 조선로동당의 큰 복이고 조선의 자랑이며 바로 여기에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강대성과 창창한 미래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가장 절박하고 심각한 문제로 제기하고있는것이 바로 청년문제이다.

그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나라와 민족의 흥망이 결정되기때문이다.

하나 오늘 세계의 현실은 어떠한가. 피난과 실업의 난파도속에서 청년들의 희망은 여지없이 깨여져나가고 부패타락과 범죄의 구렁텅이는 그들을 정신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멸시키고있다. 온갖 사회악의 희생물로, 사회의 우환거리, 골치거리로 되고있는것이 감출수 없는 오늘의 현실이다.

오죽했으면 어느 한 나라의 출판물이 청년문제는 영원히 풀수 없는 수수께끼라고 개탄했겠는가.

과연 청년문제는 영원히 풀수 없는 수수께끼이겠는가.

여기에 로씨야 로스토브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협회가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린 글이 있다.

《강국중의 진짜강국은 주체의 청년강국 조선이다. 사상과 정신이 건전하고 단결되고 열정에 넘친 청년대군의 무한대한 힘에 의하여 사회가 들끓고 눈부시게 약동하는 나라, 그것으로 하여 전도가 끝없이 밝고 양양한 나라를 가리켜 청년강국이라고 할수 있다. 아무리 령토가 넓고 인구가 많으며 재부가 넘쳐나는 대국이라고 하여도 청년들이 사상정신적으로 병이 들면 그런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주체의 청년강국,

결코 진화의 산물도, 자연사적과정의 결과도 아니다.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겨온 조선청년운동사를 더듬어볼수록 절세위인들의 령도의 자욱자욱이 력력히 어려온다.

청년운동의 강화발전에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그 무엇으로 다 전할수 있으랴.

그 손길,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 조국은 청년강국으로 우뚝 솟아 빛나고 이 땅은 청년판이 되여 바다처럼 설레이고있는것이다.

세상에 둘도 없는 이 비상한 현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것인가.

태양이 없이 꽃을 생각할수 없듯이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떠나서는 청년들도 나라와 민족의 꽃으로 필수 없다.

청년운동으로 시작된 조선혁명은 청년운동으로 전진하며 청년운동으로 승리할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 주체의 청년강국의 존엄과 위용이 함축되여있다.

그렇다. 위대한 태양의 빛발속에서만 청춘이 빛나고 청년강국이 솟는다!

바로 여기에 영원히 풀수 없다는 세계의 수수께끼에 대한 조선의 명백한 대답이 있고 지구를 뒤흔든 평양충격이 주는 영원한 진리의 메아리가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한영철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룡구역청년동맹 위원회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뜻깊은 올해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제철에 와닥닥 끝내자

안악군 농업근로자들의 궐기모임 진행, 전국의 농근맹 조직들과 농업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경쟁 호소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뜻깊은 올해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제철에 와닥닥 끝내기 위한 안악군 농업근로자들의 궐기모임이 2일 오국협동농장에서 진행되였다.

리명길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진국 황해남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박태섭 황해남도당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군안의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안악군농근맹위원회 위원장 류명일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농장길, 포전길을 걸고 걸으시며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크나큰 로고를 바치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현지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안악군을 10여차례나 찾으시어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인 토지문제해결의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시였으며 농업생산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7(1958)년 5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안악군을 찾으시였던 그날로부터 현지지도의 자욱을 끊임없이 새기시며 군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업생산에서 전변을 일으켜 인민들의 식탁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시기 위해 농업전선을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타격방향으로,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로 정해주시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농사열풍을 일으켜 계획한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여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일군들이 올해농사결속의 성과여부는 자신들에게 맡겨졌다는것을 명심하고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들끓는 전투현장에 달려나가 화선식정치사업을 침입식으로 벌려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포전방송기재와 방송선전차를 비롯한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집중하여 전투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켜 집단적경쟁열풍으로 온 농장벌이 끓어번지도록 하며 사회주의경쟁을 신속있게 조직하고 총화평가사업을 의의있게 진행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전투에서 전형을 창조하며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과감히 전개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가을걷이전투전으로 뜨락또르와 탈곡기 등의 수리정비를 말끔히 끝내며 소농기구들을 원만히 갖출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총정의 20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심장에 새겨안고 뜻깊은 올해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제철에 와닥닥 끝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릴것을 전국의 농근맹조직들과 농업근로자들에게 열렬히 호소하였다.

모임에서는 사회주의경쟁요강이 발표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력량을 집중하여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20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과 탄부들이 장마철에 많은 비가 내렸지만 석탄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며 기세좋게 달려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일은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맡은 사업을 혁명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지난 시기 탄광부문에서는 장마철이면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고 해도 자연지리적조건으로 하여 생산에서 일정한 지장을 받아왔다. 그러나 련합기업소에서는 막장들에서 받는 계절적영향을 피할수 없다고 하던 종전의 관념을 타파하고 석탄생산을 끄떡없이 내밀고있다.

200일전투에 들어선 일군들과 탄부들에게 있어서 제일 난문제가 바로 장마철생산조건이였다. 이 기간 생산량이 떨어지면 당이 제시한 전투목표수행에서 커다란 지장을 받게 된다.

이러한 때 련합기업소 당책임일군은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여 석탄생산을 중단없이 내밀것을 결심하였다.

장마철생산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전투목표를 무조건 수행하자!

이것이 200일전투에 떨쳐나선 련합기업소일군들의 결심이였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 당, 행정일군들모두가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탄광으로 달려나갔다. 막장에 들어간 일군들은 지난 시기 장마철피해정형을 현지를 밟아보면서 구체적으로 료해분석하였다.

련합기업소에서 잘한것은 대동강상류에 위치한것으로 하여 장마철피해를 제일 많이 받는 남덕탄광을 주타격방향으로 정한것이다. 생산량이 제일 많은 탄광에서 혁신이 일어나야 전반적인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울수 있었던것이다.

여러가지 합리적인 대책안들이 세워지고 모두가 한몫씩 맡아하도록 빈틈없는 조직사업이 진행되였다.

일군들은 전동기, 뽐프를 비롯한 설비들을 증설하는데 힘을 넣었다. 그들은 련관단위들에 나가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마련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였다.

동시에 남덕탄광 일군들과의 치밀한 작전밑에 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늘일수 있는 방도를 하나하나 모색해나갔다. 그 과정에 생산량이 제일 많은 2갱과 10갱에 투자를 집중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였다. 련합기업소일군들과 탄광일군들의 불같은 투쟁에 의해 탄광에 각종 뽐프 10대를 새로 설치하여 석탄생산을 내밀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련합기업소에서는 경사가 제일 심한 1갱, 6갱, 10갱, 9갱의 매 개소, 편도들에 저수웅을 종전보다 크게 만들어놓아 그 어떤 큰물에도 지장이 없게 생산을 내밀게 하였다.

남덕탄광에서 통이 큰 일판이 펼쳐지는 속에 인포, 회안탄광들과 송남청년탄광에서도 련대적혁신이 일어나 생산전투실적이 뛰여올랐다.

장마철기간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서 일군들이 잘한것은 송남탄광기계공장의 일군들과 힘을 합쳐 탄차, 탄차바퀴생산조직을 잘한것이다.

막장에 아무리 석탄이 쌓여있어도 제때에 끌어올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공장에 철판을 비롯한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해주어 생산의 불을 걸었다. 그들은 로동자들과 함께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나갔다. 그리하여 지난 7월에만도 100여대의 탄차를 만들어 탄광들에 보내주었으며 탄차바퀴만도 1 000여개를 생산하는 혁신이 일어나게 하였다. 뿐만아니라 전차, 뽐프, 감속기도 생산하여 필요한 탄광들에 보내주었다. 결과 남덕탄광 2갱, 10갱, 인포탄광 1, 2, 3갱, 회안탄광 1갱, 송남청년탄광 1, 2갱을 비롯한 련합기업소아래 탄광, 갱들에서는 8월에는 물론 9월에 들어와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며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당이 제시한 200일전투목표를 기어이 달성하고 뜻깊은 올해를 위대한 승리의 해,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이려는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일군들이 이처럼 생산조건을 마련하는데 덧붙이 품을 들인 결과 련합기업소에서는 요즘처럼 불리한 조건에서도 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특파기자 리혁철

탄전의 미더운 녀성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녀성들은 당에 대한 충성심이 높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오늘의 총공격전, 총돌격전에서 남편들과 한전호에 서서 뜻도 마음도 함께 하며 아름다운 자욱을 새겨가는 미풍지붕속에는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녀맹위원회 동초급위원회들의 녀성들도 있다.

200일전투가 시작되여 현재까지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아래 탄광들에서는 1 000여명의 녀성들이 달려나와 석탄생산에 이바지하고있다.

그가운데서도 개천탄광 전진갱에는 전진동 2부문 3초급단체 김정실동무를 비롯한 7명의 가정부인들, 무진대청년탄광 1, 2갱에는 김춘옥동무외 12명, 신흥갱에는 한순희동무외 8명의 가정부인들이 스스로 가족소대를 뭇고 남편들이 일하는 전투장에 뛰여들었다. 낮에는 낮대로 곡갈이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잊어가면서 갖가지 식료품을 마련하여 가지고 현장으로 달려나오는 불같은 심장을 지닌 가족소대원들…

200일전투의 하루하루를 값있게 보내기 위해 련합기업소녀맹위원회 동초급위원회들에서는 매달 30일을 탄부들을 위한 날로 정해놓고 그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고있다.

녀성들은 경제선동활동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선동사업을 힘있게 벌려 탄부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그들과 탄차도 밀면서 일손을 도와주고있다.

이처럼 개천지구 탄광들에는 가정일보다 나라일을 먼저 생각하며 조국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초소에 달려나와 남편들과 함께 석탄생산에 적극 이바지하는 아름다운 녀성들이 수없이 많다.

특파기자

강원땅의 금골집일가

35년간 검덕의 로동계급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한 강원도인민위원회 책임부원 강철수일가에 대한 이야기

강철수동무의 일가는 1980년대초부터 오늘까지 30여년세월 우리 나라 굴지의 유색금속광물생산기지인 검덕광업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을 위한 지원의 길을 걸어오고있다. 강철수동무의 일가를 두고 검덕사람들은 《우리 광부일가》라고 혈육처럼 대하고있으며 그들일가의 소행을 잘 아는 동지들과 이웃들은 《강원땅의 금골집일가》라고 정답게 부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혁명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편단심 당을 따르고 옹위하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떠받들려 전진합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부르신다

강원도인민위원회에서 책임부원으로 사업하는 강철수동무는 첫인상에 파묵하고 수수한 로동자형의 일군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알고보니 그는 20년나마 운전사로 일한 사람이였다. 검덕과 첫 인연을 맺던 1982년에는 원산시향곡수송대에서 화물자동차를 몰았다고 한다.

무슨 연고로 검덕과 그런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는가고 묻는 우리의 말에 강철수동무는 《로동신문》에 실렸던 한편의 보도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온 나라가 당 제6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80년대속도창조운동으로 들끓던 1982년 9월초였다. 당시 그의 가정에는 아버지 강의예와 어머니 송신명과 함께 세 아들이 있었는데 형 강철우는 고산항생소공장에서, 동생 강철삼은 고산군에 있는 광명련합차량공장에서 로동자로 일하고 강철수동무는 둘째아들이였다고 한다.

그날도 강철수동무의 3형제는 보람찬 하루일을 마치고 메사로운 기분으로 퇴근했다. 그들이 저녁식사를 맡게 들고 제마감공장에서 있은 일들을 유쾌히 주고받는데 문득 아무말없이 신문을 보고있던 아버지 강의예로인이 아들들에게 물었다.

《함흥에서 진행된 전원회의소식을 모두 들었느냐?》

그의 손에는 함흥전원회의소식이 실린 《로동신문》이 들려져있었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6차전원회의소식을 일터에서 독보도 하고 방송으로도 들은지라 다들 《예.》하고 선선히 대답했다.

1982년 9월 1일부 《로동신문》 1면에는 당시 온 나라에 커다란 충격을 준 함흥전원회의소식이 실렸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현지에서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첫째 의정은 《유색금속 150만t고지를 점령할데 대하여》였다.

전원회의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기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위원들이 다 현지에 와서 단천지구 로동계급의 투쟁모습을 직접 보고 그들을 고무해준데 대하여, 유색금속생산의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은 당 제6차대회가 내세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전망과업을 수행하며 사회주의건설위업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매우 중대하고 영예로운 대전설전투이라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강의예로인은 어둠이 짙은 창밖 멀리를 바라보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수령님께서 년로하신 몸으로 먼곳까지 가셨구나. 이렇게 집에 편히 앉아 년로보장을 받고있는 내가 죄스럽구나.》

이윽하여 아버지는 돋보기를 끼고 기사의 한구절을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전원회의는 유색금속고지점령을 위한 투쟁은 채취공업부문 혼자의 일이 아니며 전당, 전국, 전민이 달라붙어야 할 거창한 사업이라고 지적하면서 당조직들이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유색금속공업부문에 대한 지원전투를 힘있게 벌리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비록 입손을 놓았지만 지배인시절처럼 언제나 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라의 슴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려고 애쓰고있는 아버지의 심정을 너무도 잘 아는 3형제는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귀담아들었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던 어머니의 설겆이소리마저 멎었다.

《우리 수령님께서 부르신다. 우리도 검덕으로 가자.》

아들들도 어머니도 강의예로인이 신문을 읽고 또 읽으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짐작이 갔다.

부모와 자식이 대를 이어 한초소를 지켜가는 소행도 훌륭하고 아름다운 미풍이다. 그러나 수십년전에 시작한 광산지원의 길을 세대를 이어가며 해마다 걷고 또 걷고있는 한 가족의 순결한 일편단심을 어찌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길을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지켜가고있는 구봉령의 가족소대의 애국충정과 나란히 놓지 않을수 있으랴.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를 받들고 첫걸음을 뗀 애국의 길, 의리의 길, 량심의 길을 오늘까지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세대를 이어가며 변함없이 걷고있는 한 가족의 소행을 어머니당에서는 우리 시대 인간들과 모든 가정들이 본받아야 할 훌륭한 미풍으로 내세워주었다.

가정의 명줄

우리는 고산군 광명리 43인민반에 사는 강철삼동무의 집에서 강철수일가와 마주앉았다. 한것은 강철수내외를 제외한 이들일가 대부분이 고산땅에서 살고있기때문이였다. 강철삼동무의 집은 부모들이 살던 수수한 농촌집이였다.

금골집일가의 세 며느리 전순복, 임계화, 리경희동무들은 이 집뜨락에 처음 들어서던 때의 일부터 이야기했다. 그것은 어느 며느리의 경우나 같았는데 시아버지는 검덕이야기를 선참으로 들려주며 다음번엔 새아기, 너도 함께 가자고 하였고 시어머니는 여러장의 지원증서를 내놓으면서 이것이 우리 가정의 제일 큰 재산이고 가보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3형제부부의 신혼려행은 어김없이 검덕의 막장길로 이어졌고 소대명부에 새 며느리의 이름을 또 하나 올린 날이면 강의예로인은 너무 기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세 아들, 며느리를 앞세우고 로인부부가 나란히 금골로 가는 날은 이 가정의 즐거운 명절이였다. 해마다 2월이면 검덕으로 달려간 그들일가는 남모르는 지하막장길에 3형제부부의 한해 휴가를 고스란히 바치군 했다.

세간난 아들들의 집에서 귀여운 자식들이 태여나 일가의 식솔들이 하나둘 늘어가던 때에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였다. 한이삭의 강냉이도 여러 식솔의 끼니로 조개먹어야 했던 그때 검덕에 안고 갈 지원물자까지 마련해야 하는 금골집일가는 다른 가정들보다 몇갑절 더 고충을 겪었다. 한차례의 검덕길을 위해 온 일가의 모든것을 다 합쳐가던 어느날 막내며느리 리경희동무가 엄마간의 밑가루를 지고 왔다. 콜빈먹을 만드는데 조금씩 넣어 먹으라고 그의 본가집에서 보낸것이였다.

《이것으로 빵이라도 만들어가면 안될가요?》

수십어 미풋미풋 이야기하는 리경희동무도, 그를 마주한 송신명녀성과 전순복, 임계화동무들도 가슴이 미여져왔다. 몇해전에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50돐을 맞으며 수십종의 지원물자를 넣은 수십개의 지함을 마련해가지고 가서 검덕의 로력혁신자들에게 아름벌게 안겨주었던 추억이 네 녀인의 마음을 아프게 허비였다. 더우기 막내며느리가 내놓은것은 그들가정의 식량의 전부였다.

한동안 생각에 잠겼던 송신명녀성은 말없이 밑가루를 받아들었다.

며칠후 그는 리밥에 한창 자라는 올곡식을 모두 거두어들였다. 그것을 가지고 주먼 마을을 다니며 낡은 옷가지와 천들을 바꾸어왔다. 토방에 돋보기를 끼고 나앉아 낡은 옷가지의 실밥을 며칠째 뜯은 그는 그것들을 다시 깨끗이 빨아 마당가의 빨래줄과 머말을타리에 하얗게 널어놓았다. 그리고는 검덕에 가지고 갈 수백켤레의 로동장갑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의 집 리밥이 반반해질 때부터 무슨 일인가 하였던 이웃들은 이 어려운 때에 집안의 명줄과도 같은 올곡식을 장갑만들 천과 다 바꾸었다고 어이없어했지만 송신명녀성의 안색은 흔연하였다.

《우리 집 명줄이야 검덕길이지 딴거겠나요.》

소박한 늙은이의 입에서 스스럼없이 울려나온 이 말을 되새기는 우리의 마음속충격도 컸다. 과연 한가정의 명줄은 무엇인가? 쌀인가, 재부인가?

필요하다면 단벌옷이라도 뜯어 광부들의 장갑을 만들고 집안의 마지막낟알 한톨까지도 기꺼이 광부들을 위한 음식감으로 내놓을 일념에 불타는 금골집녀인들의 그 마음을 어찌 치마끈을 졸라매며 유격대에 보낸 원호미를 한줌한줌 마련한 장백의 녀인들, 《직동령의 승리방아》라는 유명한 가요를 남긴 금강의 녀인들의 애국심에 비기지 않을수 있으랴. 실지 검덕사람들은 금골집의 세 동서를 《금강의 세 동서》라고 정답게 부른다고 한다.

금골집녀인들, 그들이야말로 고난의 나날에 한가정의 끼니보다 나라의 아픔을 더 걱정하며 이를 악물고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피나게 사회주의붉은기, 사회주의생활을 지켜낸 이 나라 녀인들의 대표자들이 아니겠는가.

한점한점에 온 가정의 피와 땀이 슴배인 지원물자를 안고 때없이 멎어서는 렬차를 두번, 세번 갈아타면서 천리가 넘는 검덕으로 가던 때의 일을 강철삼동무는 눈시울을 적시며 회상했다.

보름날의 이틀길을 엿새도 넘게 가느라니 하루 한끼도 제대로 먹지 못한 식솔들의 정상은 말이 아니였다. 특히 이번이 마지막길일지도 모른다면서 년로한 몸으로 먼길에 나선 부모들이 더했다. 덜컹덜컹 달리는 렬차안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늙은 몸을 가까스로 가누고 선것을 이윽토록 바라보던 강철삼동무가 안해 리경희동무가 보물처럼 안고있는 밑가루빵이 든 배낭에 손을 뻗쳤다.

《딱 한개만 꺼내기요. 먹을걸 지고 가면서 부모님들이 굶게 하다니 말이 되오?》

그래였다. 어머니의 가냘픈 두손이 배낭끈을 풀기 시작한 그의 손을 덮었다.

《안된다. 다치지 말아!》

이렇게 하루에 몇번씩 손을 댔다가도 끝내는 떠날 때 끈을 동여맨 그대로 고스란히 지고 간 빵배낭이였건만 금골집사람들은 긴장한 전기사정으로 시시각각 풀이 차오르는 땅속에서 망치로 한덩이한덩이 까낸 광석을 등짐으로 져올리며 간고한 전투를 벌리는 광부들앞에 선뜻 내놓을수 없었다. 자기들의 지성이 너무도 모자라는것만 같아 화끈거리는 얼굴을 푹 숙이고 덤덤히 앉아있는 그들에게 검덕광업련합기업소 당책임일군이 갈린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그러지들 마오. 나라도 가정도 다 시련을 겪는 때에 머나먼 강원땅에서 우리 검덕사람들을 생각하여 안고 온 이 빵과 장갑을 어찌 좋은 날의 식량 몇 t, 옷 몇천벌에 비길수 있겠소!》

사연을 안 광부들도 울었다. 어려차례 광산을 찾으시였던 어버이수령님께서 범도 잘을 검덕사람들이라고 하신 그 억센 사나이들이 목에 걸려 넘어 안 가는 그 빵을 가까스로 씹어삼키며, 광석을 드다루느라 험해진 손에 금골집녀인들의 정성이 스민 로동장갑을 받아 끼며 석수처럼 굵직한 눈물방울을 뚝뚝 떨구었다.

《너의 아버지는 명예대원이 아니다!》

고산에서 원산까지 근 100리, 원산에서 단천까지 830여리, 단천에서 검덕까지 또 200여리, 그다음 수평갱도를 따라 인차를 타고 20리 간 다음 심부채굴장까지 수직으로 몇백m 내려가 다시 올리굴의 갱사다리를 타고 또 얼마…

가정의 한세대가 다녔다고 해도 헐치 않은 길을 3대에 굳건히 이어놓은 이들의 가풍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시작된 이 나라 가정들의 참된 가풍이 어떻게 세월의 풍파속에서도 대대손손 줄기차게 이어지는가 하는데 대한 대답이 있다.

강철우동무의 막내딸 강연옥동무의 이야기는 아버지를 잃고 처음 맞던 10여년전의 생일날에 대한 추억으로부터 시작되였다. 그때 중학교 졸업반 학생이였던 그는 2월의 눈꽃이 날리는 마당가에서 떠나간 아버지를 생각하고있었다. 살아있을적에조차 그의 생일을 단 한번도 함께 쇠지 못한 아버지!…

이맘때면 아버지는 늘 검덕에 가있군 하였다. 9살 나던 해 그는 두팔을 활짝 펼치고 검덕길을 서두르는 아버지, 어머니앞을 막아나섰다. 내 생일을 또 잊었는가고 눈물을 흘리는 철부지소녀에게 아버지는 말했다.

《아버지가 좋은 생일선물을 가져다줄게.》

연옥은 아버지가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아버지는 정말 묵직한 생일선물을 가지고 왔다.

《받아라, 금골아저씨들이 보내준 귀한 돌이다!》

후날에야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일전으로 1.4분기 광물생산계획을 끝내고야마는 금골의 변함없는 바통을 위해 검덕의 명예대원인 아버지도 딸의 생일을 마다하고 분기계획수행의 마지막돌격전을 벌리는 막장으로 달려갔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하여 그는 생일날이면 그 돌을 품어안고 광부들과 함께 지하막장에서 밤을 바칠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그려보군 하였다. 그 생일은 아버지없이 맞는 생일이 아니였고 제 자식 하나만이 아니라 조국의 재부가 가득한 검덕의 큰 산악을 한품에 안고 사는 아버지와 함께, 금골의 수많은 광부아저씨들과 함께 맞는 가장 뜻깊은 생일이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아버지가 정말로 그의 곁에 없는것이였다. 연옥의 두볼로 눈물방울이 쉼없이 흘러내렸다.

그 시각 금골광산 4.5정 고경찬채광소대의 광부들은 또다시 막장을 찾은 금골집명예대원들로부터 몇달전에 강철우동무가 사망한 소식을 전해듣고 가슴아픔을 금치 못했다.

왜 알리지 않았는가고, 그랬더라면 우리 광부들모두가 한말음에 달려가 철우동무의 마지막걸음을 바래워주지 않았겠는가고 하며 돌덩이같은 주먹으로 바위같은 가슴들을 쾅쾅 두드렸다.

금골광산 초급당일군인 김성철동무도 가슴이 미여져왔다. 불치의 병을 앓는 몸이지만 해마다 막장까지 들어와 착암기의 정대도 잡아주고 채광장정리도 함께 하면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던 강철우동무, 우리때문에 늘 막내딸생일을 쇠여주지 못하는것이 미안하다고 하는 자기에게 우리 수령님의 뜻대로 금골의 금은보화를 다 캐여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날 딸애의 생일상을 더 보란듯이 차려주겠다고 하던 잊지 못할 동지…

막장사무실 책상에 마주앉은 김성철동무는 종이우에 한자두자 써나갔다.

《우리 금골광부들의 딸 연옥아! 아버지를 대신하여 너의 생일을 축하한다. 너의 아버지는 단순히 검덕의 명예대원이 아니였다. 우리 광부들의 가장 가까운 동지이고 전우이며 혈육이였다. 우리가 캔 광석들에는 너의 아버지의 땀이 고여있다. 너의 아버지는 강원땅에서 생을 마친것이 아니라 광물증산을 위해 막장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다가 광부처럼 영용하게 순직하였다. 그처럼 참된 광부를, 훌륭한 아버지를 우리도 너도 영원히 잊지 말자. …》

검덕을 다녀온 어머니한테서 이 편지를 전달받았을 때 강연옥은 아버지가 떠나간 그날처럼 목놓아 울고울었다. 그것은 영원한 금골광부의 딸이라는 행복의 눈물, 그 이름과 함께 삶을 빛내려는 맹세의 눈물이였다.

아마도 7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것이다. 금골집일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검덕을 찾으시였던 이날을 제일 뜻깊게 맞이하군 했다. 이날에는 아버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금골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금골집의 3대들이 막장길 20리에 수놓아진 불멸의 자욱과 함께 그날에 어버이장군님께서 친히 쓰셨던 수수한 싸리안전모에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를 가슴에 새긴것도 바로 그날이였다.

강철수동무는 술을 그리 즐기지 않지만 이날에만은 형제들과 함께 한잔씩 꼭 들군 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검덕을 다녀가신 뜻깊은 날을 자기 가정의 명절로 정하고 머나먼 강원땅에서도 검덕의 광부들과 슴결을 같이하는 부모들의 모습이 자식들에게 어떤 가풍을 심어주었겠는가에 대해서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금골의 모습이 텔레비죤화면에 비쳐질 때마다, 검덕에서 더 많은 광물을 캐냈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제 집 경사인듯 기뻐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며 자란 금골집 3대들에게 있어서 검덕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세대의 모습과도 같고 태어난 고향과도 같은 정든 땅이였다.

군사복무의 나날에도 강은성, 강금성, 강윤성, 강영옥동무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검덕이 함께 있었다. 얼마전에 군사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강은성, 강금성동무들은 다음해 2월에는 부모들과 함께 검덕에 가서 고경찬채광소대명부에 자기들의 이름을 올리겠다고, 이제는 우리 3대들이 검덕길을 이어가겠다고 절절히 말했다. 군관의 안해가 된 강영옥동무를 비롯한 금골집손녀들의 가슴속에도 그와 같은 결의가 불타고있다.

현재 강철수일가의 이름들은 검덕의 유명한 고경찬채광소대의 명예대원으로 올라있다. 고경찬채광소대라고 하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온 나라가 다 아는 금골의 영웅광부들이 있는 곳이다. 하지만 그 영웅광부들도 강원땅의 평범한 한 일가의 진정에 깊이 미리숙이며 그들이야말로 참된 애국자들이라고 절절히 이야기한다.

강철수동무의 가정

금골집일가의 하많은 이야기를 다할수 없지만 한가지만은 꼭 말하고싶다. 강원도인민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운전사로 일한 강철수동무는 어려운 장거리과제가 나설 때마다 남먼저 달아나섰다. 그가 남다른 가풍을 수십년간 이어오면서도 본신임무수행을 잘하여 8차례의 높은 국가수훈을 받은 사실은 보석은 땅속에 묻혀있어도 보석이고 땅우에 꺼내놓아도 보석이며 당과 조국, 자신의 운명을 하나로 결합시키고 그것이 없이는 못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가지를 하든 열가지를 하든 언제나 한본새로 일한다는 생활의 철리를 전하고있다.

강철수일가가 35년세월 검덕으로 안고 간것은 단순히 얼마만한 수량의 지원물자가 아니라 당과 수령을 받드는 량심과 의리였다. 그들이 검덕의 지하막장에 바친것은 무수히 셀수 없는 헌신의 땀만이 아니라 자신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참된 애국의 마음이였다. 그래서 검덕의 광부들은 멀리 있건 곁에 있건 언제나 그들을 동지로, 전우로 여기는것이며 리없이 고결한 그들의 모습에서 안고 온것의 백배, 천배의 힘과 고무를 받는것이다.

겉모습은 광석처럼 듬직해도 심장은 불처럼 뜨거운 검덕의 광부들은 강원땅의 금골집일가를 대대로 잊지 않는다. 가시과 희례를 모르는 그들은 오랜 나날 지하막장에 피땀을 바쳐온 광부들의 소행을 전하듯 강철수일가의 훌륭한 가풍을 높이 평가해달라는것을 당중앙위원회에 열렬히 청원하였다.

* *

장구한 조선혁명의 길에 얼마나 많은 애국일가, 혁명일가들의 고결한 가풍이 별처럼 빛나고있는것인가.

강원땅의 금골집일가.

우리는 이 평범하고 소박한 한 가족의 모습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은덕을 잊지 않고 자자손손 충직하게 당과 조국을 받들어가는 이 나라 가정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참된 가풍을 심장으로 느낀다. 바로 그런 가정들이 우리 사회의 세포를 이루고있기에 우리의 사회주의대가정의 륜리가 그렇듯 아름답고 고상한것이며 우리 조국과 혁명의 혈맥이 그토록 순결하고 굳건하게 이어지고있는것이 아닌가.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허명숙

천만군민을 최후승리에로 추동하는 힘찬 노래포성

청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 진행

【평양 9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천만의 심장을 드높은 혁명열, 투쟁열로 더욱 불타게 하는 청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이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공연장소인 4.25문화회관은 혁명의 나팔수, 사상적기수가 되여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의 새로운 높은 경지를 개척해나가고있는 국보적인 예술단체들의 합동공연을 보기 위해 모여온 각계층 근로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애국가의 장중한 울림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관현악과 남성합창 《충성의 한길로 카고가리라》, 《빨찌산노래련곡》, 경음악 《전선행렬차》, 남성합창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녀성중창 《우리는 혁명의 계승자》, 《조선의 모습》, 가무 《우리를 무리워하라》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우리 당과 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여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과 당중앙을 따라 주체의 한길을 끝까지 걸어갈 천만군민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감명깊은 예술적화폭으로 펼쳐보이였다.

녀성중창 불후의 명작 《남산의 푸른 소나무》, 남성5중창과 남성합창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는 관람자들에게 백두의 산악처럼 드높지 않는 신념의 기둥을 역세계 세워주고 눈속에서도 푸른빛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한생 변함없이 당을 받들어나갈 혁명적의지를 백배해주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만대에 빛내이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온 나라 인민군장병들과 청년들, 인민들의 열화같은 흠모의 마음을 담은 녀성중창 《영원히 변함없으리》, 녀성3중창과 방창 《간절한 마음》, 김정일상계관작품 관현악과 남성합창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장내를 뜨겁게 울려주었다.

태양의 위업을 받들어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온 세상에 떨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이 무대배경에 정중히 모셔지자 열광적인 박수가 터져오르고 공연장소는 격정의 파도에 휩싸이였다.

관람자들은 언제나 인민을 당의 둘도 없는 지지자, 조언자, 방조자로 내세우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해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맹세를 더욱 굳게 다지였다.

당이 정해준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쭉쭉 내달리며 만리마속도를 창조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 슬기롭고 영용한 청년대군의 영웅적기상을 반영한 녀성독창과 중창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녀성중창 《우리는 만리마기수》, 남성합창 《청춘송가》로 공연은 절정을 이루었다.

우리 식의 경음악과 관현악, 독창과 중창, 합창을 배합한 특색있는 예술형식, 가수들의 참신하고 세련된 형상과 풍만하고 장중한 울림으로 음악형상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준 청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남성합창과 녀성중창 《가리라 백두산으로》로 끝난 공연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정두에 높이 모시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천만군민의 혁명적열정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4일(일요일) 오전 청춘거리경기관에서는 4.25체육단, 기관차체육단, 평양체육단 남, 녀선수들이 참가하는 기계체조안마, 평균대운동경기가 진행된다.

다음주에 청년선수권대회 여러 종목의 경기들이 벌어진다.

롱구경기가 9일부터 기관차체육단 청소년체육학교에서 시작된다.

2일에 시작된 레스링경기가 정주청년체육관에서 10일까지 계속된다.

5일부터 권투경기가 동명산체육단에서, 씨름경기가 압록강체육단에서 있게 된다.

예술체조경기는 4일부터 6일사이에 청춘거리 경경기관에서 진행된다.

륙상경기는 서산축구경기장에서, 사격경기는 압록강국방체육단에서 6일까지 있게 된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편지

훌륭한 의료일군들입니다

조선적십자종합병원 비뇨기전문병원의 의료일군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그들이야말로 뜨거운 인간애를 지닌 훌륭한 의료일군들이라는 생각으로 가슴이 젖어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한것은 지난 7월 중순이였습니다. 제가 근한달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 그들이 기울인 사랑과 정은 정말 지극하였습니다. 환자들에 대한 치료사업으로 바쁜 속에서도 언제나 당의 목소리를 심장에 새기고 전진하는 시대와 슴결을 같이하라고 하면서 위대성도서들과 신문도 안겨준 리정철심장선생님이며 제가 입맛을 잃을세라 멸식도 마련해준 당세포위원장 김봉찬선생님, 저를 위해 때없이 침대곁에서 꼬박 새우군 하던 책임간호원 염명희, 간호원 엄순영동무들, 그들이 삼복철의 무더위를 가시라고 선풍기도 마련해주고 시원한 옥류관 국수도 앞에 놓아줄 때 저는 그만 북받쳐오르는 격정에 가슴을 들먹이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정녕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고 혈육의 정을 부어주는 이런 참된 의료일군들이 있어 사회주의보건제도가 더욱 굳건해지고 우리 조국은 인간사랑의 대화원으로 더 활짝 꽃펴나는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성시 관훈동 52인민반 황보수현

6.15통일시대의 언론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여

북남관계가 최악의 파국상태에 처하고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재난을 몰아오는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의 무분별한 군사적도발망동이 절정에 달하고있는 지금 민족의 언론인이라면 누구나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에 도움이 되는 애국적인 언론활동을 벌려나가야 한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참된 언론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몸소 가르쳐주시며 북과 남의 언론인들이 힘을 합쳐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길을 열어나가도록 이끌어주신분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 정력적인 령도의 나날속에는 누구도 따를수 없는 숭고한 동포애와 열화같은 덕망으로 남조선언론인들을 한품에 안아주시고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주시며 그들이 민족자주정신을 가지고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도록 일깨워주신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새겨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여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채택은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장장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불신과 대결의 북남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키고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놓은 민족사적인 사변이였다.

이러한 현실은 북과 남의 언론인들이 불미스러운 과거에서 벗어나 함께 손잡고 6.15통일시대의 전진을 추동하며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성스러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갈것을 요구하고있었다.

6.15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이룩해나가는데서 언론이 노는 중요한 역할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남조선언론사대표단에 평양방문의 길을 열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주체89(2000)년 8월 평양을 방문한 남조선언론사대표단을 친히 접견해주시고 뜨거운 동포애의 정을 부어주시며 오랜 시간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그 뜻깊은 자리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당하여온 수난에 찬 분렬의 력사를 회고하시면서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가지고 새 천년대의 요구에 맞게 민족앞에 나서는 력사적과제를 풀어나가며 민족공동의 리익을 도모하고 북남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킬데 대해 가르쳐주시였다.

6.15공동선언을 리행하는데서 북과 남의 언론기관들과 언론인들이 자기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공동선언을 리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인민들의 의사에 맞는 언론활동을 적극 벌려야 한다시며 화해와 통일의 시대에 언론이 지니고있는 사명을 뚜렷이 밝혀주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그이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남조선언론인들은 감동되지 않을수 없었다.

희불많은 자기들을 나무랄 대신 너그러운 아량과 넓은 포용력으로 따뜻이 품어주시고 시종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애국애족적이고 통일지향적인 언론활동을 벌려나갈데 대해 가르쳐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대양의 모습을 우러르며 남조선언론사대표단 성원들은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모습은 주체37(1948)년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직후 남조선신문기자단을 친히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그대로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북련석회의가 성과적으로 끝났는데 남북통일에 대한 소감은 어떠하신가고 묻는 남조선기자들에게 나라의 통일여부는 이 투쟁에 전민족적력량을 동원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뜻과 유훈대로 6.15통일시대의 언론의 역할을 높여 해내외의 온 민족을 통일위업실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킴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시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절대불변의 의지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귀중한 교시를 받아안는것을 최상의 영광으로 여긴 남조선언론사대표단 성원들은 어려움도 잊고 그이께 무람없이 자기들의 생각을 말씀올리였다.

그때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해박한 식견과 철의 론리, 예리한 판단과 해학적인 설명으로 즉석에서 명쾌한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조선의 한 언론사대표가 통일시키는 언제쯤 될것 같은가고 스스럼없이 말씀올리였을 때 그건 북과 남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어떻게 우리가 접심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는가에 따라서 통일은 이제 당장이라도 실현될수 있는 문제이라고 신심에 넘쳐 교시하시였다.

순간 남조선언론사대표단 성원들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것이 솟구쳐올랐다.

민족이 힘을 합친다면 통일은 당장이라도 실현될수 있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는 6.15통일시대의 원동력이 무엇이며 조국통일위업실현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백히 밝혀주신 금옥같은 교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 얼마나 정당하고 위력한 통일의 보검이며 민족언론의 사명이 얼마나 중대한가 하는것을 누구나 절감할수 있게 하는 참으로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마디마디에 애국애족의 뜻과 의지가 넘쳐흐르는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 모든것을 민족리익의 견지에서 보고 대하며 민족을 우선시하시는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누구인들 미리를 숙이지 않을수 있겠는가.

설사 지난날 동족을 적대시하며 대결을 선동한 언론인이라 할지라도 광복의 도량과 민족단합의 숭고한 의지를 안으시고 조국애, 민족애의 정을 심어주시는 그이의 위대한 래양의 풍모앞에 어찌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수 있겠는가.

남조선언론사대표단을 따뜻이 맞이하시고 그들에게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 자주통일시대의 라침판을 안겨주신 어버이장군님의 절세의 위인상은 온 민족을 매혹시키고 전세계를 격동시켰다.

력사에 뚜렷이 아로새겨진 6.15통일시대의 격동적인 현실은 북과 남의 언론인들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위업의 전진을 힘있게 추동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헌신과 탁월한 령도력을 떠나 결코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열렬한 민족애와 넓은 포용력으로 남조선언론사대표단을 친히 평양에 불러주시고 그들을 접견해주시며 하신 간곡한 교시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북과 남의 언론인들은 물론 온 겨레가 심장속깊이 새겨안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할 고귀한 유훈으로 되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위대한 장군님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가리키시는 자주통일의 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감으로써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워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라 설 하

침략자, 호전광들의 본성은 감출수 없다

남조선괴뢰들이 미국과 함께 지난 8월 22일부터 남조선전역에서 벌려놓은 대규모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 북남사이의 군사적대결을 극도로 고조시키였다.

우리는 미국과 괴뢰당국에 북침합동군사연습의 위험성과 그 파국적후과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도발적인 불장난소동을 걷어치울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호전광들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함으로써 긴장완화와 평화를 바라지 않는 저들의 침략적본성을 낱낱이 드러냈다.

괴뢰들은 이번 연습에 대해 그 무슨 《정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느니, 《정세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것》이라느니 하고 뻔뻔스럽게 미화해나섰다. 하지만 그 어떤 말장난으로도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의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성격을 가리울수 없다. 이번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이야말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적인 핵선제공격을 가상한 극히 위험천만한 북침핵시험전쟁이였다.

올해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에는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은 물론 남조선의 행정기관들과 민간업체, 수십만명의 민간인들, 민간선박과 민간비행기들 비롯한 방대한 인적, 물적자원이 투입되였다. 연습에서는 악명높은 《작전계획 5015》에 따른 《평양점령》 등을 가상한 공격작전들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숙달, 완성하기 위한 각종 불장난소동들이 광란적으로 감행되였다. 연습기간 유사시 조선반도에 제일먼저 전개될 임무를 맡고있는 미제침략군 3해병대 원정군 사령관이 우리의 코앞인 연평도에까지 나타나 괴뢰들과 함께 련합작전태세를 점검한 사실은 훈련의 침략성과 위험성을 뚜렷이 부각시켜주고있다. 특히 연습을 앞두고 미제침략군의 핵전략폭격기들이 괌도에 전진배치되고 괴뢰들이 전반적전선에서 최대규모의 포사격도발을 감행한데 이어 대규모종합전투훈련까지 광란적으로 벌린것은 스쳐지날수 없는 사태이다. 이것은 이번 연습이 결코 《정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에 대한 기습적인 핵선제타격을 노린 위험천만한 군사적도발이였다는것을 명백히 립증해주고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의 강행으로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은 더한층 격화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최근 우리는 나날이 극단에로 치닫는 북과 남사이의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일념으로부터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민족의 운명과 나라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동족사이의 불신과 오해를 가시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새 장을 펼치려는 우리의 노력에 호응해나왔어야 하였다.

그러나 동족에 대한 적대의식과 대결관념이 골수에까지 꽉 들어찬 박근혜역적패당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통포애적선의와 아량에 외세와 함께 북침합동군사연습의 포성을 요란히 터치는것으로 대답해나섰다. 그것으로 괴뢰들은 북남관계파괴의 장본인, 극악한 전쟁광신자로서의 저들의 추악한 몰골을 스스로 드러내놓았다.

동족을 해칠 흉악한 기도를 추구하면서 북침불장난소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괴뢰역적패당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증오는 하늘을 찌르고있다. 우리는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핵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하는 박근혜패당의 무분별한 군사적도발을 추호도 묵과하지 않을것이며 그에 단호히 대응해나갈것이다.

동방의 핵강국, 군사대국으로 위용떨치고있는 우리의 군사적잠재력은 무진막강하며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자비한 타격력앞에서는 그 어떤 침략세력도 무사할수 없다.

괴뢰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우리의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걸고들면서 그 무슨 《단호한 대응》이니 뭐니 하고 허세를 부리고있지만 가소롭기 그지없다.

정의의 핵억제력으로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핵전쟁도발책동을 완전히 분쇄해버리는것은 우리 혁명무력의 단호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침략과 전쟁의 야성을 뜯어버리고 통일성전의 승전포성을 울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세는 충천하다.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이 핵공격능력을 완벽하게 보유하고 군사대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선 우리의 심멸적타격을 피할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책없는 모험과 분별없는 대결망동이 아니라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건드리지 않고 자중, 자숙하는 길뿐이다. 이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

온 정 철

민심을 우롱하는 제3후보지검토놀음

《싸드》배치와 관련하여 괴뢰패당이 민심을 달래보려고 제3후보지문제를 들고나오고있다. 얼마전 자라목을 해가지고 또다시 성주군에 나타난 괴뢰국방부장관 한민구역도는 《싸드》배치결정의 《불가피성》을 운운하며 그 무슨 《제3후보지검토》니 뭐니 하고 떠들어댔다.

그러면 괴뢰들이 《싸드》배치와 관련한 제3후보지문제를 입에 올리며 민심을 어떻게 기만하고있는가 보기로 하자.

보도된바와 같이 경상북도 성주군이 《싸드》배치지로 확정되자 격분한 이곳 주민들은 참외밭을 갈아엎고 초불집회와 삭발투쟁을 벌리며 박근혜패당의 망동을 단죄규탄하였다. 성주군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싸드》를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는 단호한 립장을 표시하고 《싸드》반대투쟁이 남조선전역으로 확대되자 다급해난 괴뢰들은 궁여지책으로 제3후보지문제를 들고나왔다. 그리고 제3후보지로는 주변에 민가가 적고 《싸드》레이다의 전자기파로 인한 피해론난을 최소화할수 있는 성주군의 한 골프장이 가장 적합하다고 광고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붙는 불에 키질하는 격이 되였다. 문제의 골프장과 린접한 경상북도 김천시의 주민들이 들고일어난것이다. 김천시의 인구수는 성주군의 3배나 된다. 그리고 성주골프장과 가장 가까운 김천시 접경지역과의 직선거리는 불과 600m이라고 한다.

그러니 웃돈 뭉아 아래돈 고이는 격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놀음에 김천시 주민들이 어찌 분노하지 않겠는가.

지난 8월 24일 8 000여명의 김천시 주민들이 《〈싸드〉배치 결사반대 범시민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삭발투쟁 등을 전개했다. 그들은 《김천 〈싸드〉배치 온몸으로 저지한다》라고 쓴 현수막들을 내걸고 반역패당을 성토하였다.

남조선 각계에서는 《싸드》를 성주가 아니라 괴뢰국회가 있는 여의도에 가져다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결국 괴뢰패당은 제3후보지검토놀음으로 흑매려다가 오히려 혹을 덧붙인 꼴이 되였다.

지금 《싸드》배치와 관련하여 남조선인민들이 요구하는것은 그 어떤 제3의 후보지선택이 아니다. 그들은 화근덩어리인 《싸드》자체를 아예 남조선에 끌어들이지 말것을 요구하고있다. 《싸드》가 그 어디에 배치되는 그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운명이 칠성판우에 오르기는 매한가지이기때문이다.

《싸드》의 남조선배치는 미국의 대아시아지배전략에 따른 미싸일방위체계구축책동의 일환이다. 미국과 괴뢰들이 그 무슨 《북의 핵, 미싸일위협》에 대해 떠들며 그것을 구실로 남조선에 《싸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우기고있지만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남조선과 해외의 전문가들은 《싸드》는 조선반도의 주변대국들을 겨냥하고있으며 이 나라들과 미국사이의 전략적균형을 파괴하고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실제로 《싸드》가 남조선에 배치되면 그 기술적특성상 조선반도의 주변대국들도 감시권, 타격권안에 들어가게 되여있다. 얼마전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방성 미싸일방위국장이라는 자가 기자회견에서 《싸드》는 《중국을 겨냥하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도 《기술적으로는 탐지가 가능》하다고 스스로 토설한것도 그에 대한 실증이다. 이로 하여 주변나라들은 《싸드》가 배치될 경우 그에 따른 군사적대응도 마다하지 않을 자세를 보이고있다.

대아시아지배전략실현에 광분하는 미국의 강요와 그에 대한 박근혜패당의 맹목적인 추종의 산물인 《싸드》사태로 재난을 당하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이다. 《싸드》는 그 배치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지금 성주와 김천의 주민들은 우리 아이들 발딛고 살아가는 곳 그 어디에도 《싸드》를 배치할수 없다고 웨치면서 항의투쟁을 매일같이 이어가고있다.

박근혜패당이 《싸드》배치와 관련하여 제3후보지검토놀음을 벌려놓았지만 그것은 각계의 강력한 규탄여론을 모면하고 인민들의 투쟁기운을 가라앉히기 위한 오그랑수에 지나지 않는다. 《싸드》는 남조선의 그 어디에 가져다놓아도 재앙단지로밖에 될것이 없다.

괴뢰패당이 미국상전의 말을 앵무새처럼 외우며 《싸드》가 인체와 환경에 부정적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우기고있지만 남조선인민들은 코웃음을 치고있다. 얼마전 김천시 주민들은 괴뢰국방부에 《〈싸드〉피해가 없다면 왜 다른 장소로 옮기려 하는가.》라고 물었다. 하지만 괴뢰군부패거리들은 이 물음에 골먹은 벙어리시늉을 하였다. 괴뢰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 《새누리당》 의원도 김천시 주민들의 물음에 《할 말이 없다.》고 탄식을 늘어놓았다.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패당이 아무리 제3후보지검토놀음을 벌려놓으며 민심을 얼려넘기려 해도 그에 속지 않고있으며 매국역적의 무리를 단죄규탄하는 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해나가고있다. 괴뢰들이 《제3후보지검토》니 뭐니 하고 민심을 기만우롱하면서 한사코 《싸드》를 남조선에 끌어들이려 한다면 그 용납 못할 매국반역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 효 진

핵침략전쟁연습을 중지하라, 미국은 남조선에서 물러가라, 련석회의 가로막는 반통일책동 그만두라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항의단이 일본주재 미국대사관과 남조선괴뢰대사관에 대한 항의투쟁 전개

【도꾜 9월 1일 조선통신발 조선중앙통신】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항의단이 남조선에서 침략적인 핵전쟁연습을 벌려놓고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의 무모한 책동을 규탄하여 지난 8월 29일 일본주재 미국대사관과 남조선괴뢰대사관에 대한 항의투쟁을 전개하였다.

일본 경찰당국이 장갑차와 무장경찰을 증강하여 미국대사관으로 가는 길을 완전히 차단한 채 삼엄한 경계망을 펴며 항의단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당장 그만두라!》는 프랑카드를 든 항의단이 차단선을 뚫으며 행진하자 경찰이 이를 제압하려고 탄압에 들어왔다.

항의단성원들은 《핵침략전쟁연습을 중지하라!》, 《싸드배치를 철회하라!》,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전환하여 평화협정체결에 나서라!》,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미국은 남조선에서 물러가라!》 등 미국의 전쟁책동을 단죄하는 구호들을 웨치고 앞을 가로막아나서는 경찰들과 격렬한 싸움을 벌리며 완강히 맞서나섰다.

항의단은 이어 남조선괴뢰대사관에 대한 항의운동에 나섰다.

100여명의 무장경찰이 괴뢰대사관주변에 삼엄한 경비망을 치고있는데 대처하여 항의단은 분산적인 기습으로 저지선을 뚫고 전원이 대사관앞에 집결하였다.

《핵침략전쟁연습을 중지하라!》는 프랑카드를 든 항의단성원들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당장 그만두라!》, 《싸드배치를 철회하라!》, 《사대매국, 동족대결을 걷어치우라!》, 《북, 남, 해외련석회의를 가로막는 반통일책동을 그만두라!》고 웨치며 동족대결에 광분하는 박근혜역적패당을 치솟는 민족적분노를 안고 준렬히 규탄하였다.

이어 항의단은 괴뢰대사관에 항의문을 들이댔다.

지난 8월 24일 재일조선청년항의단이 일본주재 미국대사관과 남조선괴뢰대사관에 대한 항의투쟁을 전개한데 이어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항의단이 반미, 반괴뢰투쟁을 힘있게 벌린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이바지하려는 재일동포청년조직들과 청년들의 애족애국의 굳은 신념과 의지의 뚜렷한 발현이다.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김영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대표단성원들은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만경대일가분들의 고귀한 애국적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리신 나이에 나라찾을 큰뜻을 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다.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여 조국을 해방하시고 우리 겨레의 운명을 구원해주신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은 민족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대표단은 또한 청년운동사적관, 평천혁명사적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등을 참관하였다.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대표단 청년운동사적관 참관

스리랑카에 가는 우리 나라 보건대표단 출발

장준상 보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보건대표단이 스리랑카에서 진행되는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지역총회 제69차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2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김형훈 보건성 부상과 루샤라 페르난도 주조 세계보건기구 대표가 전송하였다.

이딸리아 여러 정당소속 국회의원대표단 귀국

안또니오 라찌 이딸리아 국회 상원 외교위원회 서기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딸리아 여러 정당소속 국회의원대표단이 2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이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참가한 해외동포청년들을 위한

연 회 진 행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참가한 해외동포청년들을 위하여 마련하여주신 연회가 2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연회장은 청년동맹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으로 빛내여주시고 주체청년운동발전의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여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연회에는 김용주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청년동맹대표단, 김영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대표단,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총련의 대표단, 방문단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동지와 정영원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비서, 김진국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김영철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슬하에 둔 자식보다 멀리에 있는 자식에게 더 정을 기울이는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해외동포청년들을 위한 연회를 마련하여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나라없던 지난날 민족적멸시와 천대속에 시들어가던 해외동포청년들이 이역땅에서도 가슴펴고 떳떳이 동포사회의 주력군으로 자라날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때문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의 대를 꿋꿋이 이어갈 계승자들의 대부대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업적은 영광스러운 조선청년운동의 빛나는 력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오늘 조선청년운동은 이 땅우에 세상이 일찌기 알지 못하는 김일성, 김정일청년강국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민족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어버이수령님들의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뜻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백두산친솔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여 주체의 청년운동은 위대한 사회주의강국, 백두산대국의 빛나는 앞길에 영원한 승리의 력사만을 아로새겨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해외동포청년들이 앞으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간직하고 충실성의 전통, 애국의 전통을 이어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애국의 대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가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하였다.

다음으로 김용주단장과 김영녀단장이 연설하였다.

그들은 은정깊은 연회상을 받아안은 격정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대회에 참가하여 꿈결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은것은 해외동포청년들의 최상최대의 영광이며 행운이라고 말하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와 경축행사들에 참가하여 세상에 유일무이한 청년대강국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사상과 업적을 심장깊이 체득하며 천하제일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해외청년전위가 된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벅차게 새겨안은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동포청년들과 해외동포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조선청년운동의 개척자이시며 청년강국의 건설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며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대회에서 하신 강령적인 연설을 불멸의 대강으로 높이 추켜들고 청년조직을 경애하는 원수님께 무한히 충직한 해외청년전위대오로, 죽어도 애국의 신념을 버리지 않는 사상과 신념의 결정체로 반석같이 다져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리상과 념원이 현실로 꽃펴 통일되고 부강번영하는 백두산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는 성스러운 위업에 불타는 애국지성을 다 바쳐 특색있게 이바지해나가겠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전체 조선청년들의 위대한 스승이시고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안녕을 삼가 축원하여, 끝없이 부강번영할 사회주의조국, 백두산청년강국의 양양한 미래를 위하여, 주체적청년운동의 끊임없는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제4차 보건부문체육경기대회 폐막

제4차 보건부문체육경기대회가 폐막되였다. 경기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은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할 일념안고 평시에 련마해온 체육기술과 집단의 단결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2개 부류로 나뉘어 진행된 경기대회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과 고려의학과학원이 종합 1등을 쟁취하였으며 조선적십자종합병원과 보건성 치과종합병원이 2등을, 김만유병원과 옥류아동병원이 3등을 하였다.

폐막식이 2일 평양체육관에서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동지와 관계부문, 보건부문의 일군들과 선수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교직원, 학생들이 폐막식에 참가하였다.

강하국보건상이 폐막사를 하였다.

그는 보건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이번 경기대회에서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체육활동조건과 환경을 훌륭히 갖추어놓고 체육열기를 더욱 고조시켜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연설자는 모두가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킬데 대한 당의 의도를 심장에 새기고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림으로써 건장한 체력으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침략자들에게 차례질것은 시체와 죽음뿐이다

올해는 미제침략선 《서먼》호가 우리 나라에 기어들어 불법무도한 만행을 감행하다가 평양인민들의 애국적인 반침략투쟁에 의하여 대동강에 수장된 때로부터 150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19세기 침략의 예봉을 아시아지역으로 돌린 미국은 우리 나라를 주되는 침략대상으로 정하고 1866년 대포와 각종 무기로 중무장한 침략선 《서먼》호를 대동강에 침입시켰다. 이때부터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조미대결의 력사가 시작되였다.

미국이 예나 지금이나 《서먼》호가 우리 나라와의 정상적인 통상을 위해 들어간 《상선》이였다고 억지를 쓰고있지만 그것은 그 어디에서도 통할수 없는 궤변이다. 《서먼》호는 명백히 우리 나라를 식민지화하기 위한 미국의 대조선침략정책에 따라 파견된 철저한 침략선이였으며 침략의 척후대, 선견대였다.

19세기 전반기에 미국은 《포함외교》로 아시아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책동을 집요하게 벌렸다. 특히 조선반도가 차지하고있는 지정학적중요성을 간파한 미국은 1845년 《조선개방안》이라는것을 들고나와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는것을 대조선정책의 기본목표로 내세웠으며 우리 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원정대》조직에 착수하였다. 그 선견대로 뽑힌것이 바로 《서먼》호였다.

조선으로 출발한 《서먼》호의 침략무리들은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에까지 기어들어 대동강류역과 평양성을 정찰하면서 살인과 략탈을 일삼았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에 대한 로골적인 침해행위였다.

애국심이 강한 평양인민들은 침략자들의 만행을 보고만 있지 않았다.

열렬한 애국자이신 김응우선생님의 조직지휘밑에 평양성 군민들은 침략선 《서먼》호를 화공전술로 불태워 대동강에 침략아버리고 침략자들을 한놈도 남김없이 모조리 소멸해버렸다. 이것은 응당한 징벌이였고 우리 인민이 반미투쟁에서 달성한 첫 승리였다.

《서먼》호의 격침은 조선인민의 민족적기개를 과시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근대력사를 빛나게 장식한 력사적사변으로 되였으며 미국이 우리 나라에 대한 첫 침략에서부터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한 사건으로 되였다.

미국은 여기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대조선침략야망을 버리지 않고 《에난도아》호, 《차이나》호 등을 들이밀어 여러차례의 군사적침공을 감행하였다. 하지만 그때마다 패배 패하고 쫓겨나고말았다.

우리 인민을 굴복시켜보려던 미국의 대조선침략정책은 처음부터 파산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어떻게 하나 저들의 대조선침략목적을 실현해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일제의 조선강점과 식민지통치를 적극 뒤받침해주었으며 그 대가로 우리 나라의 경제적리권을 장악하고 조선인민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1945년에는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에 기어들어 우리 나라를 분렬시키고 온갖 야수적만행을 다 감행하였다. 1950년에는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미제는 아침은 해주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을것이라고 하면서 기세등등하여 달려들었다.

미국은 조선사람을 잘못 보았다. 조선전쟁에 륙군의 3분의 1과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함대의 대부분, 15개 추종국가군대들과 남조선괴뢰군, 일본군국주의자들까지 도합 200여만명의 대병력과 방대한 전쟁장비들을 동원하였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항전앞에서 숱한 시체만을 남기고 대참패를 당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천출명장의 령도밑에 미국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았다. 우리는 미제와의 대결에서 승리하였고 미국은 패하였다.

미당국자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여기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대조선침략정책을 포기하였어야 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을 비롯한 각종 도발적인 사건들을 조작하고 그를 구실로 방대한 무력을 들이밀어 우리 공화국을 눌러주고 삼켜보려고 하였다.

어리석은 망상에 불과하였다. 미국에 차례진것은 우리에게 사죄하고 시체와 포로들을 찾아가는것뿐이였다. 우리는 승리에 승리만을 거듭하였다. 그 증견자인양 오늘도 《푸에블로》호는 족쇄를 차고 만사람의 쓰디쓴 조소를 받으며 보통강반에 묶이여있다.

비극은 미국이 첫 조미대결에서 패한지 15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힘으로 우리 나라를 먹어보려는 어리석은 망상에서 좀처럼 깨여나지 못하고있는것이다. 미국은 세기와 년대를 이어 집요하게 추구해오는 대조선침략야망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자살적인 망동인지 아직까지도 모르고 날뛰고있다.

《힘이 곧 정의》라는 환각에 사로잡혀있는 미국은 올해 봄에도 방대한 핵살인장비들과 해외침략전쟁터에서 악명을 떨친 미제침략군의 륙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거의 모든 특수작전무력들을 총투입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였다. 최근에는 《수뇌부제거》와 우리의 전략적시설들에 대한 《정밀타격》을 노린 《작전계획 5015》를 적용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벌렸다.

세계 그 어느 지역,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극히 모험적인 전쟁각본에 준한 실동연습이 진행된적이 없다. 이것은 미국이 골수에 배긴 대조선침략야망을 키어이 실현하기 위하여 군사적모험의 길로 서슴없이 나아가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패배의 력사를 망각하고 오산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최강의 병기로 불리우는 수소탄까지 보유하고 핵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라선 군사대국이다. 우리는 지상과 해상, 수중과 공중에서 미국본토를 재가루로 만들수 있는 강위력한 핵타격수단들을 갖추고있다. 만일 미제가 감히 우리에게 덤벼든다면 우리는 무자비한 핵불벼락으로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인 미제침략자들을 씨도 없이 소탕해버릴것이다. 침략자들은 한놈도 살아남지 못하며 차례지는것은 오직 시체와 죽음뿐이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군사적침략소동에 발광하고있는 미제에게 주어진 피할수 없는 숙명이고 필연이다.

불세출의 선군령장의 탁월한 령도를 받는 우리 군대와 인민앞에서 미국이 아무리 악을 써도 패자의 운명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조미대결에서 승리는 영원히 우리것이고 만회할수 없는 참패는 영원히 미국의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기와 년대를 이어오는 조미대결력사가 보여주는 변할수 없는 법칙이며 진리이다.

세계는 앞으로 우리가 150년동안이나 지속되여온 조미대결을 어떻게 빛나게 결속하고 최후의 승리를 안아오는가를 가슴후련히 보게 될것이다.

리 학 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경축행사, 도서전시회 진행, 인터네트에 글 게재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즈음하여 민주콩고에서는 경축집회가, 앙골라에서는 좌담회가 8월 24일과 25일에 진행되였다.

집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세기를 주름잡으며 사회주의강국에로 비약하는 주체조선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민주콩고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총비서를 비롯한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펼치시는 선군령도따라 조선청년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청년전위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즈음하여 조선청년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강조하였다.

앙골라 까빈다주 전실감독 등 발언자들은 력사가 보여주는것처럼 청년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지난 세기말 여러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좌절은 청년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한것과도 관련이 있다, 청년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나라는 오직 백두산천출위인들을 모신 조선밖에 없다고 언급하였다.

조선청년들은 백두산천출위인들의 품속에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명장들로 자라나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고 찬양하고 그들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는 조선청년들의 일심단결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될것이라고 확언하였다.

민주콩고에서 진행된 집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 프리고글라스공업회사에서 8월 26일 우리 나라 도서전시회가 진행되였다.

전시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위대성도서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성과들을 소개하는 도서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사장 이브라힘 톤데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각하께서는 탁월한 사상과 령도력으로 청년운동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그분들의 손길아래 청년동맹은 조선로동당의 위력한 정치적후비대로 억세게 준비되였으며 조선청년들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쳐왔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청년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고계시는데 대하여 그들은 칭송하였다.

그들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가 조선청년운동발전에서 빛나는 리정표를 마련하는 력사적인 대회로 될것이라고 확언하였다.

* *

민주콩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가 8월 29일 《조선청년운동은 승리와 영광의 력사》라는 제목의 글을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렸다.

글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나라 청년운동발전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새 세대 혁명가들로 첫 전위조직인 《ㄷ.ㄷ》를 결성하신 때로부터 조선청년운동은 주석과 김정일각하에 의하여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찬 력사를 새겨왔다.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정치를 펼치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업적은 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오늘 조선청년들은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과 조국보위에서 영웅적위훈을 창조하고있다.

김정은각하를 모시고 성대히 진행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는 조선청년운동발전에서 새로운 력사적리정표로 되였다.

대회에서는 전체 조선청년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반영하여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명칭을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으로 명명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선청년들은 앞으로도 조선로동당의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다할것이다.

절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나아가는 조선청년들의 앞길은 언제나 밝고 창창할것이다.

미국과 남조선의 합동군사연습은 엄중한 도발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여러 나라에서 보도

미국이 끊임없이 벌려놓고있는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비롯한 대조선적대시책동과 핵위협요소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하고 무자비한 대응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선언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8월 22일부터 26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스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과 남조선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엄중한 도발로 락인하였다.

대변인은 담화에서 이번 군사연습은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각종 핵전략복격기와 《싸드》 등 전략자산들을 계속 끌어들여 전례없이 불안정해진 조선반도정세를 전쟁발발국면에로 몰아가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이라고 규탄하였다.

계속하여 대변인은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이 전면중지되지 않는 한 조선반도와 지역에서의 긴장완화나 평화와 안전보장에 대하여 생각조차 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벌려놓고있는 전쟁연습을 비롯한 대조선적대시책동과 핵위협요소들은 조선군대와 인민의 단호하고 무자비한 대응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하여 미국이 공격적이고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들과 무력증강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면서 정세격화의 악순환을 조성하는 속심은 최극단의 정세를 조성하여 그것을 구실로 남조선에 더 많은 전략자산들을 끌어들이고 미일남조선3각군사동맹형성을 합리화하며 조선반도지역에서 군사적지배권을 유지해보려는데 있다고 까밝혔다.

대변인은 조선은 미국의 항시적인 핵위협으로부터 국가와 제도를 보위하기 위한 자위적조치로서 핵무장의 길을 선택하였으며 핵무력강화를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가고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미국에 의하여 강요되고있는 핵전쟁위험을 강위력한 핵억제력에 의거하여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립장이라고 강조하였다.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찌통신, 데헤-로쓰통신, 신문들인 《모스꼽스끼 꼼쏘몰레쯔》, 《브즈글랴드》, 《빠를라멘트까야 가제따》, 중국의 홍콩 《대공보》, 《문회보》, 수리아신문 《알 사우라》, 이란신문 《페이한 인터네슈널》, 모리따니의 인터네트통신 누악쇼뜨 라이프, 인터네트신문 《알 사르끄 알 요움》, 브라질신문 《오라 도 보보》, 베네수엘라신문 《헤아》, 방글라데슈 에이리연TV방송, 로씨야의 인터네트홈페지 《빠뜨리오뜨 모스크바》,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그루빠, 민주콩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도 《조선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 규탄》,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요소들에 단호하고 무자비하게 대응할것을 천명》 등의 제목으로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해야 한다고 언명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씨예드 알리 카메네이가 8월 28일 고위군사지휘관들과의 담화석상에서 이란군대는 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해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지금 자주적인 이란인민을 목표로 침략세력들이 새로운 진영을 형성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란무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타격력으로 저들의 침략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극단주의를 배격할것을 호소

마로끄국왕 모하메드6세가 8월 20일 한 연설에서 모든 마로끄인들이 극단주의를 배격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이슬람교의 이름을 걸고 테로에 가담하는자들은 사실상 이슬람교도들이 아니라고 폭로하였다.

그는 해외에서 살고있는 마로끄인들이 고상한 이슬람교의 본태를 수호하고 극단주의를 반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진피해복구문제에 대해 언급

만마대통령 된 죠가 8월 25일 지진피해복구사업에 힘을 넣을 정부의 립장을 밝혔다.

그는 얼마전에 있은 강한 지진으로 바간시의 많은 력사유적들이 피해를 입은 실태에 대해 료해하고 불탑들을 비롯하여 파괴된 유적들을 원상대로 복구하고 보존하는 사업에 국가적지원을 강화할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협조

—싱가포르와 월남이 8월 29일 두 나라사이의 경제무역관계를 강화할데 관한 량해각서에 조인하였다.

이에 앞서 27일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은행업분야에서 호상 협조할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중국과 월남이 8월 30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적협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앞서 29일 인디아와 딴마가 도로건설과 재생에네르기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하부구조개발노력

아르헨띠나의 프리엔떼스주에서 최근 하부구조개발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8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라 주에서는 총 780km의 도로를 새로 건설하고 324km의 도로를 다시 포장하는 사업이 진행되게 된다.

또한 66km의 철길을 보수하고 새 항구와 다리를 건설한다.

계획이 완성되면 주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된다고 한다.

경제전망

인도네시아에서 다음해 경제가 5.1~5.5% 장성할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이것은 예견되는 올해 경제장성률보다 0.2% 더 높은것이라고 한다.

8월 30일 이 나라 중앙은행이 밝혔다.

관광업 발전

브루네이에서 지난해 이 나라를 방문한 관광객수가 400만명이상에 달하였다.

이것은 그 전해에 비해 4.5% 늘어난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성과는 관광객들의 편의와 안전보장사업을 강화하고 관광안내자들과 봉사원들의 수준과 역할을 높이는 등 관광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조치에 따른것이라 한다.

8월 23일 정부가 밝혔다.

비난과 규탄을 불러일으키는 미국의 무기판매책동

미국이 무기판매에 계속 열을 올리고있다.

최근 미국무성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6 000만US$어치의 각종 무기와 무장장비판매를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기관총과 경기관총, 자동소총, 저격소총 등이 판매되게 된다.

미국은 이번에 판매되는 무기들이 테로와 싸우는 아프가니스탄정부군을 돕게 될것이라고 횡설수설하고있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대가로 저들의 돈주머니를 불구려는 검은 속심은 절대로 감출수 없다.

세계도처에서 분쟁과 살륙, 파괴와 략탈을 조장시키는 미국의 무기판매놀음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 *

메히꼬외무상이 8월 22일 제네바에서 있은 유엔회의에서 연설하면서 국내에서 무기판매를 금지할것을 미국회에 요구하였다.

그는 지금 자기 나라와 이웃하고있는 미국의 국경지역들에 수많은 무기상점들이 늘어져있으며 거기서 합법적으로 구입된 공격용무기들이 메히꼬에 밀려들어와 커다란 재난을 초래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메히꼬는 비법적인 무기밀매행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미국회는 위험한 무기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자연피해

이딸리아의 중부지역에서 8월 24일에 있은 강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고있다.

8월 26일현재 사망자수는 291명으로 늘어나고 388명이 부상당하였으며 2 100여명이 한지에 나앉았다.

지진발생후 1 300차례이상의 여진이 있었으며 피해는 더욱 확대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 *

로씨야의 체츠냐공화국에서 최근 강풍을 동반한 무더기비로 큰물피해를 입었다.

그로즈느이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큰물로 8월 28일현재 사망자가 발생하고 60여채의 살림집이 파괴되였다.

또한 학교와 병원, 체육관 등 공공건물들이 부분적으로 손상되였다.

피해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긴급구제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 *

볼리비아의 베니주에서 최근 벼락에 의한 인명피해가 났다.

벼락으로 8월 29일현재 5명이 죽고 1명이 부상당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산림조성과 보호를 위한 각국의 노력

산림은 인간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매우 귀중한 재부이다. 그러나 오늘 세계적으로 방대한 산림자원이 황폐화되고있는것으로 하여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남부수단만 놓고보더라도 현재 적극적인 환경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50년동안에 산림이 완전히 없어질 형편이라고 한다.

지구상에서 산림자원이 계속 줄어들고있는것으로 하여 초래되는 피해는 이루 헤아릴수 없다. 대기를 정화하여 신선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장해주던 산림면적이 감소됨으로써 사람들속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늘어나고있다. 산림파괴로 세계각지에서 무더기비에 의한 산사태와 큰물피해들이 련발하고있으며 야생동물들의 서식환경이 파괴되여 생물다양성에도 심각한 위협이 조성되고있다.

보다 엄중한것은 산림의 극심한 파괴가 지구온난화과정을 더욱 촉진하고있는것이다. 알려진것처럼 산림은 온실효과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강한 능력을 가지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지구상의 식물은 매해 4 000억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2 000억t의 산소를 내보낸다고 한다. 이처럼 산림은 환경위기, 식량위기, 물위기를 산생시키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림자원이 대대적으로 늘어난다면 인류가 현시기 직면하고있는 위기들을 극복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것이다.

그러나 파괴된 산림자원을 원상대로 복구하는데는 많은 시일이 걸린다. 현실은 모든 나라와 지역들이 한시바삐 이 사업에 관심을 돌리고 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로부터 지금 세계적으로 산림조성과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전망적인 산림조성 및 복구계획들을 작성하고 그 준비사업들을 적극 추진시켜나가고있다.

얼마전 인디아는 국토면적의 많은 부분을 산림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그에 따라 쇠퇴상태에 처한 500만ha의 산림을 복구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하고있다. 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에서는 전망적인 산림조성계획실현을 위하여 기후변화에 적응할수 있는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대대적으로 육종할 계획을 세우고 이 사업에 국가적인 투자를 하고있다. 탄자니아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한 5개년계획을 발표하고 매해 많은 면적에 나무를 심을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으며 모든 단위들이 나무심기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아프리카의 10여개 나라들은 천연수림을 회복시키는 등 산림복구사업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산림보호를 위한 국가적인 대책들도 세워지고있다.

많은 나라들이 산림보호법을 엄격히 제정하고 그 실행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해나가고있다. 한편 산불과 병해충 등에 의한 산림파괴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신속히 대처할수 있는 국가적인 감시, 통원체계를 부단히 정비, 완성해나가고있다.

캄보쟈에서는 산림보호구들의 수를 늘여나가는 방법으로 산림자원에 대한 보호를 법적으로 담보하고있다.

베닌정부는 산림보호를 위해 목재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칸실에서 목재의 리용률을 줄이도록 요구하는 한편 땔나무림을 조성하여 산림의 람도벌현상을 방지하고있는 나라들의 수도 늘어나고있다.

국제적으로 산림조성과 보호를 위한 연구사업들이 광범히 진행되고있으며 이 분야에서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목재대신에 낟알짚이나 바나나와 망고, 커피나무얼매 등을 수확한 후에 남는 잎사귀와 줄기들 지어 코끼리의 배설물을 리용하여 종이를 생산하는 기술을 확립하였다. 전문가들은 가까운 년간에 이와 같은 기술들이 목재를 원료로 하는 다른 전통적인 제품생산분야에 보급되여 산림보호에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예측하고있다.

산림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가고있는 가운데 그것을 보호하고 적극 늘여나가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앞으로 응당한 결실을 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안철권

오늘도 우리 민족의 복수를 부르는 간또대지진참변

일본의 파거죄악사는 그 한페지한페지가 조선민족의 피로 얼룩져있다.

간악한 음모와 군사적강권으로 조선의 국권을 빼앗은 일제는 식민지군사파쑈통치기간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하였다. 간또대지진때 일제야수들이 감행한 조선인집단학살만행은 그 단적인 실례이다.

수많은 무고한 조선사람들에게 죽음과 고통의 재난을 들씌운 간또대지진참변을 몰아온 일제의 극악한 만행은 인류사에 류례없는 대학살범죄로서 93년이란 세월이 흐른 오늘도 일제의 천인공노할 죄행을 만천하에 고발해주고있다.

1923년 9월 1일 낮 12시경 력사상 보기 드문 대지진이 일본의 간또지방을 휩쓸었다. 리히터척도로 7.9의 강한 지진은 모든것을 파괴하였으며 그로 인한 화재는 순식간에 간또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었다. 120여만명의 주민들이 한지에 나앉았으며 20여만명이 무너지는 건물에 깔려죽고 불타죽었다.

력사에 수록된 간또대지진는 결코 자연적인 재난만이 아니였다. 이 재난을 악용한 간악한 일제에 의하여 우리 민족은 참혹한 죽음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당시 파국적인 지진으로 재난을 당한 피해지역 주민들속에서는 구제대책을 위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바빠맞은 일본당국은 저들에게로 쏠리는 국민들의 불만을 다른데로 돌리기 위하여 《조선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집단방화하고있다.》는 거짓여론을 내돌리며 조선사람을 닥치는대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였다.

곧 군대, 헌병, 경찰 등 무장집단과 민간인으로 무어진 《자경단》을 비롯한 우익깡패들이 총동원되여 일본전역에서 조선인학살을 시작했다.

《그곳은 석탄재로 메운 400~500평쯤 되는 공지였다. 공지에는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거의나 알몸뚱이인 조선사람들의 시체들이 머리를 북쪽으로 하고 주런이 누워있었다. 하나하나 들어다보니 사람들의 목부분이 끊기워 기관지와 식도의 목동맥이 히영게 드러나있었다. 목이 떨어져나간 시체들도 있었는데 목을 강짜로 비틀어 끊었는지 살과 피부와 힘줄이 졸려있었다.》, 《그들은 아이들부터 차례로 목을 살라죽이고 어른들은 판자벽과 기둥에 비끄러매놓고 칼로 한도질하였다. 칼이 없는자들은 톱을 들고나와 산사람의 팔다리를 자르기 시작했다. 경찰서안은 피가 가득차서 장화를 신지 않고서는 발을 옮겨디딜수조차 없었다.》, 《한 애젊은 조선녀성의 시체도 있었다. 그 녀성의 배는 갈라져있었고 6~7개월쯤 되어보이는 태아가 창자속에 딩굴고있었다. 그것을 본 순간 나는 너무나도 놀라 옆으로 휘면서 물러섰다. 우리 일본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잔인한짓을 했단 말인가. 내가 일본사람이라는 수치감을 이때처럼 절감하기는 처음이였다.》… 이것은 당시의 광경을 목격한 일본인들의 증언들이다. 일제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조선사람들의 수는 헤아릴수 없다.

인류력사에는 미국의 인디안살륙만행, 히틀러도당의 유태인멸살행위 등 악명을 떨친 살륙만행들이 수없이 기록되여있다. 하지만 일제살인귀들처럼 자연재해까지 타민족말살의 기회로 악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례는 없다. 이것은 민족배타주의사상이 뼈속까지 배인 일본사무라이와 같은 살인악마, 인간백정들만이 감행할수 있는 특대형반인륜적범죄행위이다.

그때로부터 근 한세기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일본은 저들이 저지른 조선인집단학살범죄행위에 대해 성근하게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아직까지도 이 사건의 진상조차 똑똑히 밝히지 않고있으며 군대와 경찰의 관여를 인정하지 않는 등 이에 대한 아무런 죄의식도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있다.

더우기 스쳐보낼수 없는것은 오늘날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우익반동세력들의 민족배타주의책동이 보다 살기를 띠고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것이다.

지난 4월 일본 규슈의 구마모도지방에서 발생한 대규모지진재를 계기로 인터네트에 조선사람이 우물에 독약을 쳤다는 황당무계한 글이 실렸는가 하면 조선인의 폭동에 조심하라는 등 극단한 민족적적대감과 혐오감을 고취하는 류언비어들이 공공연히 나돌았다. 이것은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고 온갖 불행을 들씌운 군국주의망령이 아직도 배회하고있다는 산증거이다.

일본에서 조선민족을 적대시하는 망발들이 거침없이 튀어나오고있는것은 일본반동들이 력대적으로 집요하게 추구해온 반공화국, 반총련적대시정책의 직접적산물이며 우리 민족을 또다시 노예화하여 《대동아공영권》의 맛품을 실현해보려는 재침야욕의 발로이다.

일본은 오산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우리 민족은 화승대도 번번한것이 없어 섬나라 오랑캐들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을 겪어야 하였던 약소민족이 아니다.

우리 공화국은 존엄높은 정치사상강국, 강위력한 핵억제력을 갖춘 세계적인 군사대국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보위하고 우리 겨레의 운명과 생존권을 우롱하는자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징벌할것이다.

일본반동들이 조선재침야망에 환장이 되여 군국주의광기를 계속 부린다면 우리 인민은 쌓이고쌓인 반일감정을 총폭발시켜 천백배로 복수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수진

ㄱ-611423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판매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